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 벤 스타인

제 22권 제4호(통권 173호)
2021년 4월 15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김홍길
인쇄처 팜커뮤니케이션
발행처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주 소 서울시 서초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전 화 (02) 525-1053
(02) 597-2377
팩 스 (02) 525-1054
이메일 025251053@daum.net
등록번호 서초라 11499



전국한우협회

한우마당 / 46

- 46 **화보**
제 8·9대, 10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제 2대 한우정책연구소장에 정승헌 교수 임명
- 48 **우리한우이야기 _ 의로운 소 이야기**

특집 **농업의 기동, 도약하는 한우산업** / 51

- 52 **축사 _ 정세균 국무총리**
- 54 **특별인터뷰 _ 김삼주 회장**
- 58 **주목**
美 유력 매체 '한우고기는 세계 최고의 쇠고기' 극찬
- 60 **기자의 시선**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우리한우
- 64 **논단**
지구를 지키는 환경지킴이 한우, 오해와 진실

한우와 사람 / 74

- 74 **새의자**
신건호 광주·전남 도지회장
“선제적 수급조절, 지도자부터 솔선수범해야”
- 78 **최종효** 대구·경북도지회장
“한우협회 성장동력위해 함께 노력”
- 80 **한기웅** 부산·경남도지회장
“열린 소통과 화합으로 권익보호 최선”
- 82 **이규옥** 대전·충남도지회장
“국민께 항상 감사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가져야”
- 84 **고기정** 제주도지회장
“제주한우만의 특별함이 한우가치 더높일 것”
- 86 **현장 스케치**
제 8·9대, 10대 이취임식

정보마당 / 93

- 94 3월 한우동향분석
- 105 백문백답 한우사육
- 108 우리에게 다가온 위협,
소의 럼피스킨병!
- 118 우량송아지에게 어울리는 MPP 사료
- 122 소음으로 사육 한우 폐사...
인근 시멘트회사가 배상해야

소식·알림마당 / 124



제 8·9대, 10대 임원 이·취임식 성료

김삼주 회장, 취임식 갖고 소통단합 강조

본회는 지난 3월 3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제8·9대, 10대 임원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로써 제 10대 전국한우협회장에 김삼주 회장이 공식 취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축하영상을 통해 “예나 지금이나, 한우는 한국농촌의 기둥이며, 식량안보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정성을 다해 지원할 테니, 자긍심을 갖고 한우산업을 지키고 키워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10대 한우협회장에 취임한 김삼주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으로 한우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자세로 소통과 협력 그리고 상생하는 같은 꿈을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행사는 전국한우협회 유튜브를 통해 재시청할 수 있다.



제 2대 한우정책연구소장에 정승헌 교수 임명

본회는 한우정책연구소 제 2대 소장에 정승헌 前건국대 교수를 임명하고 본격적인 출항을 알렸다.

제 2대 정승헌 한우정책연구소장은 “지난 40년간 축산업에서 일하면서 후학을 양성해 온 경험을 살려 한우산업에 봉사하고, 한우산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과 사육현장에 필요한 실증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정책연구소가 한우농가를 위한 실증연구와 전문가 그룹과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한우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농가의 경영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한우농가 권익신장과 한우강소농 육성방안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우정책연구소는 소장 1명(비상근)과 상근직원 3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농가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해 중소규모 농가의 육성·지원 등의 대책을 고안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로운 소 이야기

옛날에 경상도 낙동강변에 권씨 성을 가진 사람 이 살았는데 집안사정은 넉넉하지 않았으나 상복이 라는 10살난 아들을 키우고 살았다고 한다.

이 집에서 키우던 암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어느날 송아지를 낳아 이 집 식구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특히 어린 상복이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가 하나 생긴 꼴이 되어, 상복이는 서당에 가 공부하는 것보다 송아지를 몰고 나가노는 것이 일상사가 되어버렸다.

공부해서 집안을 일으키라는 부모님의 매일 같은 꾸지람도 상복이에게는 들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몇 년이 흘러 송아지는 황소가 되고, 상복이는 이 황소를 타고 서당을 다니게 되었다.

서당 마칠 시간이 되면 황소가 스스로 알아 서당 문앞에 기다리고 서있을 정도가 되었다 하니 서로의 정이 얼마나 두터웠겠는가.

겨울이 채 오기전에 해가 많이 짧아진 탓인지, 예전에 비하여 가히 늦지 않은 시간인데도 사방이 조용하니 어둑해진 길을 상복이는 황소 등을 타고 집에 돌아오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호랑이를 만난 것이다.

너무나 놀란 상복이는 그만 황소 등에서 떨어져 밭의 언덕에 꼬꾸라지면서 그만 정신을 놓고 말았는데, 그순간 호랑이는 황소를 덮쳐 버렸다.

업치락 뒷치락 엄청난 소란이 일어나면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고, 다시 정신을 잡은 상복이가 주위를 둘러보니 두 짐승의 싸움은 끝이 난 뒤였다.

그런데 호랑이는 저만치 황소 뺨에 찢려 죽어 있고, 황소는 심한 상처를 입고서는 웅웅거리며 앞드려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상복이가 가까이 다가가 황소를 살펴보니 맹수중의 맹수 호랑이와 싸운 황소는 거의 숨이 끊어질 듯 기진맥진 해 있는 지라, 상복이는 피투성이의 황소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다 동네에 내쳐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 설마하며 달려가 보니 저만치 나가 떨어져 있는 호랑이와 이미 숨을 거두어 버린 황소를 보고서는 “이 소가 예사 소가 아니구나”라며 감탄



하면서도, 주인을 살리느라 온 힘을 다해 싸운 후

숨을 거둔 황소를 애처로이 여기며 칭송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권씨부부와 동네 사람들은 자기를 죽여 사람을 살린 이 황소를 고이 묻어주고, 그앞에 의로운 소의 무덤(義牛家, 의우가)’이라는 비석을 세워 주었다 고한다.

옛 어른들의 말을 의하면, 소와 호랑이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가 꽤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호랑이가 소의 목덜미를 먼저 물면 호랑이가 이기나, 달려드는 호랑이를 뿔로 받아 일단 하늘로 올리기만 하면 소가 이긴다고 한다.

호랑이가 땅을 밟아 미쳐 힘을 써보기도 전에 재차 호랑이를 들이받아 공중으로 받아 올리기 때문에 호랑이가 먼저 지쳐 쓰러진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다.

이와 비슷한 실화가 2007년 1월 신문기사로 나온 것이 있는데, 1993년 경북 상주에 임봉선 씨의 암소 누렁이가 갑자기 고삐를 끊고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온사방으로 이 누렁이를 찾아 헤매다가 발견한 곳이 이웃에 살던 김보배 할머니 무덤가였다고 하는데, 누렁이는 이 할머니 묘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었다고 한다.

돌아가신 김보배 할머니는 누렁이집 이웃에 살면서 평소에 주인보다 더 누렁이를 보살펴 주었는데, 이 할머니를 못잊은 누렁이는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주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이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 할머니 영정에 문상까지 했다고 하니 믿기 어려운 이야기 임에는 틀림없다.

이 의로운 소를 동네사람들이 공동으로 매입하여 사람대접을 해주면서 성심껏 보살폈다 하는데, 2007년 1월 11일 19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자 상주시는 꽃상여까지 준비하여 성대히 장례를 치러주고 경천대박물관 옆에 ‘의우총(義牛家)’이라 이름 하여 묘도 잘 써주었다고 한다.

사람의 마음이 지성으로 통하면
짐승까지도 다 알아주는 것이 세상사지 않던가.

말이 필요 없는 영양만점
초유분말

1일 1회만으로 간편하고
완벽한 효능을 경험해보세요!



황금덩 Gold Dung 송아지 전용

- 송아지 설사 개선 보조제
-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의 조합!
- 약한 송아지의 장을 튼튼하게!



안정된 **한우산업**
함께하는 **민족산업**

농업의 기둥, 도약하는 한우산업

지난 3월 31일 서울 aT센터에서 진행된 본회 8·9대, 10대 임원 이·취임식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축사를 통해 한우산업이 대한민국 농촌 기둥산업으로 농업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는 핵심산업이라고 추켜 세웠다.

정현찬 농특위원장은 “공익적 기능과 가치가 조명되고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다”면서 “한우협회도 소통과 화합으로 우리 농정에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안으로는 안정적인 사육환경 조성, 대외적으로는 한우산업에 대한 공익적 기능과 우수한 가치를 통한 세계화 등에 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제 10대 임원 취임을 시작으로 한우산업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본격화되는 사육두수 증가 국면에서 다양한 소비를 발굴하고 있는 협회의 움직임과 세간의 평가를 통해 세계속으로 뻗어나갈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모색해 본다.

정세균 국무총리

한우는 농촌의 기동, 식량안보의 핵심

본회 제8~9대·10대 임원
이·취임식 영상축사서 밝혀



+ congratulatory message

존경하는 전국한우협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8대와 9대, 그리고 제10대 전국한우협회장 이·취임식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한우산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오신 김홍길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10대 김삼주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한우산업의 미래 비전을 만드시겠다는 회장님의 다짐을 힘껏 응원합니다.

전국의 한우인 여러분,

지난해, 수해와 태풍으로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특히, 장기화 된 코로나19와 구제역으로, 한우농가의 고통이 매우 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견뎌주셨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우는 한국농촌의 기동이며, 식량안보의 핵심입니다.

나아가, 환경과 공존하는 경축순환농업(耕畜循環農業)의 표본인 한우산업은 우리 농업의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긍심을 갖고 한우산업을 지키고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정성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김삼주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한우산업이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다시 한번, 전국한우협회장 이·취임식을 축하드리며, 한우인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주 회장

한우의 공익적 가치로 국민 공감대 높일 것

올해는 한우 사육두수 증가로 가격 하락세가 전망되는 등 한우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코로나19로 경기는 위축되지만 사료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고, 여기에 사육되는 한우는 더욱 늘어나 녹록지 않은 상황. 신임 김삼주 회장은 축산환경법 적극 대응,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 및 비육우 경영안정제 도입 추진, 대기업 축산진출 규제방안 강구, 유통 투명화 등의 현안 해결을 통한 안정된 한우산업 구현의 중요성과 함께 최근 도전받는 축산환경 문제를 정면 돌파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민족산업으로의 안착을 준비 중이다.



+ Interview

전국한우협회장 취임소감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전국 한우농가를 위해 우직한 한 마리의 소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됐다. 한우산업을 지키는 파수꾼이자 대변자가 되기 위한 영광스러운 자리다. 회장 당선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마음을 더 느끼고 있다. 농업·농촌의 근간인 한우산업으로 농민들이 화합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소통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청취하는 농가의 목소리를 정부에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권익보호 및 대변자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임기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저의 중점추진 사항은 계속되는 농가들의 현장 목소리가 될 것이다. 농가들이 바라는 염원은 간결하다. 한우산업의 안정화와 진심이 통하는 소통이다. 걱정 없이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산업 환경, 그리고 협회가 구심점이 되어 한우인들을 결

집해 권익보호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는 요구다.

정부에 바라는 점도 명확했다. 한우농가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소값 안정을 위한 생산자들의 자구수급조절 노력을 인정하고 폭넓게 지원해달라는 것과 규제를 위한 규제, 옥상옥 규제보다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이행할 수 있는 제도구축과 속도감을 주문했다.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들이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되고 있지만 억눌린 소비심리가 가정소비와 보복소비 등으로 이어져 아직 한우가격을 제법 지지를 해 주고 있다. 그러나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 넘는 소비진작 분위기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우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한우백서 편찬, 축산환경문제 해결, 기업자본의 축산업 사육 진출금지 등 불안정한 미래보다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한우산업과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한 작업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구현해 가는 것이 내 임기동안 주어진 책임과 의무로 생각한다.



암소 비육시켜
출하하도록 하는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추진
,
사업참여 기준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첫 숙제

특히, 기업자본의 축산업 진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기업자본이 중심이 된 농업법인의 직영농장, 농축협의 생축장, 농축협의 위탁사육 등 농민이 주체가 되어야 할 사육분야 진출에 반대하는 것이지, 한우의 유통·소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사육은 농민이, 기업과 농축협은 사료 등 원자재의 생산과 유통, 도축과 육가공, 축산물 유통같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한우산업은 자신의 농장에 직접 투자하고, 위험도 감수하는 건전한 사육주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농민들이 잘 키운 한우를 더욱 가치있게 더욱 잘 팔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응원한다. 협회가 지금까지 GS리테일, SK스토아, NS홈쇼핑 등과 한우 유통·소비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업무협약을 맺은 이유도 이와 같다고 본다.

앞으로도 기업형 자본의 위탁사육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건전한 사육주체 중심의 한우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이나 조합의 생축장의 경우 농업경영체에 주어지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과 면세유, 농업용 전기의 이용 등의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요구해 기업의 사육 부문 진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최대 현안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최대 현안은 한우가격 안정이다. 협회는 암소를 비육시켜 출하하도록 하는 미경산우비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참여 기준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첫 숙제다.

이와 함께 치솟는 사료가격으로 가중되는 생산비 부담 해소다. 이 또한 협회에서는 이미 양질의 전용사료를 출시해 생산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사료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것이 큰 의미다. 자체 출하망과 미경산우 신시장 개척으로 유통·소비까지 해결해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의 유기적인 연결과 안착 그리고 고도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한우가격을 지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로 축산환경규제 해소가 있다. 환경에 대한 고민은 축산업계, 농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부분이다. 농가 스스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자구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정부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제도를 도입하고 이행을 강요한다면 농민들의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 과도기에 있다고 본다.

한우의 공익적 기능으로

환경문제에 정면돌파를 하고 있는데.

소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식물성 단백질과 농업부산물을 가축사료로 재가공하고 사료로 활용한다. 밀을 제분한 뒤 나오는 부산물도 마찬가지다.

초식 반추동물인 소의 4개의 위 안에서 여러 미생물 및 생균작용을 거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부산물을 소화시키고 가축분으로 배설한다. 배설된 가축분은 경종 농가의 양분으로 활용되어 쌀과 채소의 건강한 생장을 돕고, 다자란 가축은 국민에게 훌륭한 단백질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자연순환적인 가치가 높은 소는 어떤, 그 무엇보다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인 산업가축이다.

소의 가치에 대해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는 지구환경지킴이다. 축산환경문제가 최근 대두되는 가장 큰 위기지만, 한우산업은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더욱 높은 가치와 공익적 기능으로 국민에게 사랑받을 것이다.



美 유력 매체 ‘한우고기는 세계 최고의 쇠고기’ 극찬

지난 3월, 미국 유력 매체인 USA투데이가 한우를 10대 최고 관심사 중 하나로 꼽으며 집중 보도해 화제가 됐다. USA투데이는 '한우가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고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한우가 최고의 쇠고기라고 소개했다.

기사에선 한우의 역사도 언급됐다. 매체는 “한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종 소 품종 중 하나로, 2000년 이상 한국 땅에서 자랐고, 1960년대까지 주로 쌀 농사 경작에 사용됐다”며 “하지만 그후 고기소로서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가족과 즐기는 외식메뉴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우는 일본 와규보다 비싸고 고베보다는 덜 비싸며, 미국산·호주산 쇠고기보다 2배나 비싼 가격으로 한국에서 생산·판매되는 아주 매력적인 맛의 고기”라고 극찬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푸드네트워크에서 한국 음식 관련 프로그램 ‘Korean Food Made Simple’을 진행하는 주디 주 셰프는 “(한우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겨지고 비싼 가격이 책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농부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사료 혼합 공식을 갖고 있다”며 “일부는 맥주를 사용하고 일부는 발효된 솔잎, 보리, 쌀, 그리고 혼합 통곡물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알코올 발효 사료는 생균제가 풍부하고 자연적으로 소를 건강하게 하고, 술은 또한 고기를 부드럽고 기름지게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체는 한우가 해외서 일본의 소품종인 고베나 와규처럼 국제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유력 매체 '한우고기는 세계 최고의 쇠고기' 극찬

아주 매력적인 맛의 고기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는데, 맛있는 고기여서 자국민 수요가 높고, 잇따라 발생된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또, 홍콩에서 해산물과 스테이크 요리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 샌디 경의 말을 인용해 “쇠고기는 마블링 즉, 지방 대 단백질 함량에 따라 맛이 결정되는데 한우는 지방이 많은 와규(지방 70%, 살코기 30%)와 지방이 적은(20~30%) 미국산의 중간인 40~50%의 지방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한우의 품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소가 어떻게 길러지고 먹여지는가에 주목하며, 한우로 길러지는 소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풀어 길러지며 맥주를 마시거나 마사지를 받기도 한다고 전했다.

USA투데이는(USA Today)는 미국의 일간신문이다. 현재 미국의 종합일간지 중에서 유일하게 전국지로 발간되는 신문으로 발행부수가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다. 4주 간격으로 여행 전문가들이 ‘10베스트 인터레스트’(10 Best Interests) ‘10베스트 리더스 초이스’(10 Best Readers Choice)를 뽑고 각각을 기사로 소개한다. 10베스트 인터레스트는 세계 각국의 음식, 음료, 여행 중 최고를 보여주는 항목으로 한우가 세계 최고의 쇠고기라고 소개한 셈이다.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우리한우

다양해진 가격대로 세분화 '뚜렷'
타 품목과 컬래버로 구매욕 자극

부산물 간편식 시작으로 T커머스(디지털TV쇼핑) 진출

■ 글 박현욱(농축유통신문 편집국장) · 이해진(축산경제신문 기자)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우리한우

한우가
입에서
사르르
녹아요

2021년 설 명절 전 롯데백화점 한우 선물세트 매장. 식을 줄 모르는 한우 인기는 소비자들로부터 구매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올해는 다양한 라인업의 한우 세트가 출시돼 소비자들에게 전폭적인 인기를 누렸다.

미경산 암소 한우세트 1호. 암소 특유의 부드러움과 깊은 육향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롯데백화점은 2021년 설 명절 다양한 전략 기획상품을 내놔 소비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많은 업체들이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백화점만큼 오랜 기간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 낸 경험이 있는 업체도 드물다. 특히 농축산물 중 가장 으뜸 상품인 한우의 경우 백화점 매출의 1등 공신으로 꼽힌다. 때문에 한우는 명절 때만 되면 백화점의 전략 기획 상품으로 양성된다. 백화점의 상품 포지셔닝으로 한우산업의 미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가 찾는 백화점은 가격 저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보니 다른 업종에서 기획하지 못한 고가의 상품을 배출해 내기 때문이다. 명절만 다가오면 한우부문에서만 약 5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롯데백화점은 신세계, 현대백화점보다 압도적인 한우 선물 세트 판매율을 자랑한다.

새롭게 떠오르는 신수요 '미경산우'

“한우가 입에서 사르르 녹아요.”

10년 차 주부 김수아(42) 씨는 미경산우를 그동안 맛본 한우 중 최고라고 엄지를 추켜세운다. 우연한 기회에 일선 식당에서 미경산우를 맛보고 풍부한 풍미와 혀를 감싸는 깊은 감칠맛에 매료됐다는 김 씨는 한우의 '찐 팬'이 됐다.

하지만 미경산 암소를 사기 위해 늘 인터넷 쇼핑에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지만 구매처가 마땅치 않아 늘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김 씨의 귀띔. 롯데백화점에서 출시한 미경산 암소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매장을 방문한 김 씨는 “나 같은 고기 ‘덕후’를 위해 이런 기획 상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경산우비육지원사업 연계한 브랜딩 유통판매 전략 박차

지난 설 명절에는 롯데백화점 창사 이래 최초로 기획한 한우 선물세트인 미경산 암소가 화제가 됐다.

미경산 암소는 한 번도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로 부드러운 육질과 풍부한 육향으로 고

기 전문가들조차 엄지를 चु켜세우지만 그동안 구매처가 많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 거리였다.

웬만한 '고기 덕후'가 아닌 이상 미경산 암소가 어떤 제품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맛은 깊고 육질은 거세우보다 부드러워 실버 세대와 아이들로부터도 호응도가 높다.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미경산우와 거세우를 30개월 비육한 결과 미경산우의 육질이 거세우보다 20% 이상 부드럽고 연하다고 발표한 결과도 있다.

도상우 롯데백화점 한우 바이어는 “올해 한우 사육 두수 과잉으로 한우 가격이 낮아질 것이 예상되자 정부와 한우협회가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을 시작했고, 미식가들은 2021년 미경산 암소를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경산 암소뿐만 아니라 명절 때마다 한우 선물세트는 다양해진 소비자 취향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컬래버레이션도 동원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명절에는 카멜레온처럼 변신한 다양한 한우 선물세트가 소비자들을 유혹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홈 쿡'이 유행하면서 다양한 라인업으로 무장한 한우의 변신이 극대화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복수의 한우 바이어들은 “한우와 다른 품목과의 결합은 한우의 부가가치를 더 끌어올리는 수단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한우의 컬래버레이션 상품 출시에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한다.

HMR부터 정육까지 판매 확대

지난해부터 한우협회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유통사업 활성화가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구이류 외에도 부산물을 활용한 간편식을 비롯해 정육도 전국의 소비자들이 손쉽게 한우를 접할 수 있도록 유통채널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우협회는 지난해 NS홈쇼핑 올해 초 GS리테일과 손잡은 데 이어, 지난달 17일 SK스토아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다양한 판로 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SK스토아 관계자는 “기존의 상품과 차별화된 상품을 준비해서 소비자들에게 다가서겠다”면서 “소비자가 생산부터 도축·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 등과 함께 현장감 있게 구현해 가정의 달, 한우 먹는 날 등에 한우 정육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우협회는 다양한 판로 확보와 유통 다각화를 통해 적체된 부산물 소비를 견인하는 한편, 새로운 시도와 컨셉으로 한 정육 판매로 한우 소비 활성화까지 도모할 계획이다. 다양한 시도와 변화가 한우의 '팬덤'을 만들고 있다. 이같은 변화의 시작이 사랑받는 한우,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arth

지구를 지키는 환경지킴이 한우 오해와 진실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국내 배출량의 2.7% 불과
 ‘소’ 온실가스 배출 많지만 식품 폐기물 먹어치우는 환경지킴이
 축우사료 원료 대부분 식품 폐기물... 환경개선·식품 가격 안정에 기여

■ 글 · 김재민(농장과 식탁)



축산업은 고기와 젓, 알과 같은 축산식품과 가죽과 털과 같은 의류 소재 등을 생산하기 위해 가축을 사육하는 산업이다.

축산물은 필수영양소인 동물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공급하고, 비타민과 철분, 칼슘 등 여러 미량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어 인류의 생명 연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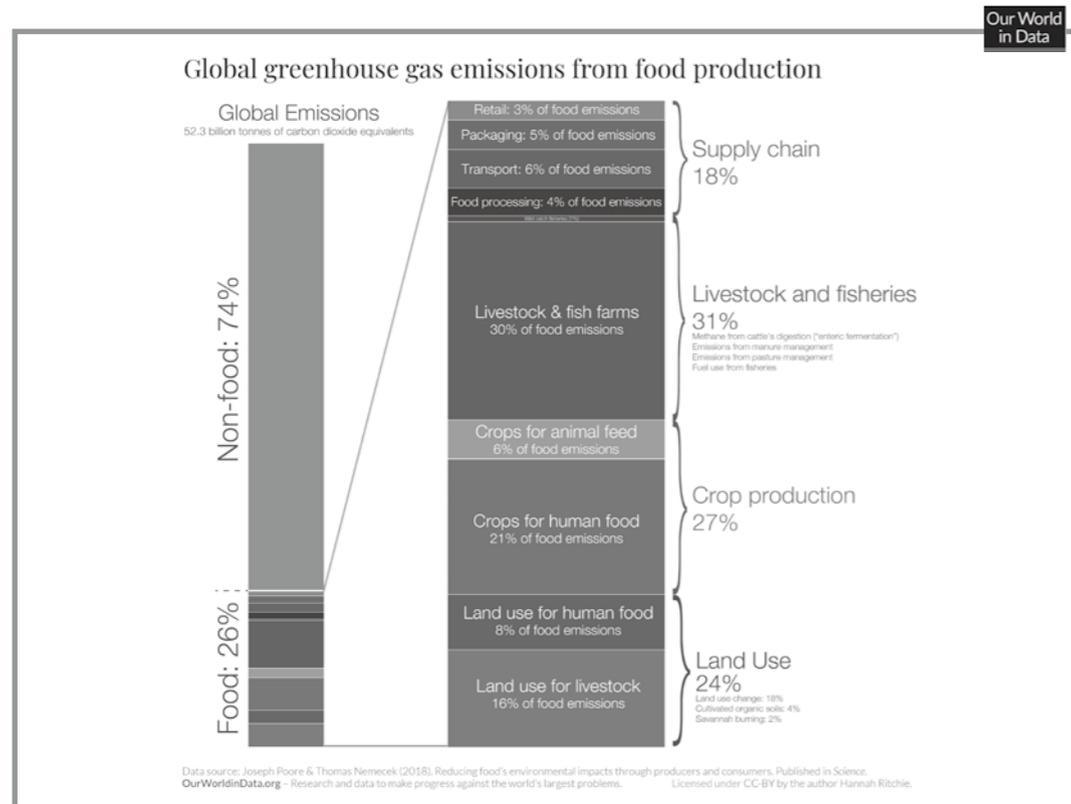
가축사육의 역사는 신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되었지만, 영양개선과 보건 및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축산물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며 과거와 다른 집약된 형태의 축산업으로 전환되었고, 그로 인한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파리기후협약 이후 탄소중립 요구가 거세지면서, 축산업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다른 가축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축우 분야의 경우 소가 가지고 있는 환경 개선 역할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나오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만 가지고 소 사육두수를 감축하기 위해 쇠고기와 유제품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Our World in Data’ 누리집의 식량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Environmental impacts of food production)에 따르면 농식품 분야가 배출하는 총 온실가스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4(26%)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수송과 제조업, 에너지 분야 등 비식품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은 74%다.

식품 중 축산 및 수산양식 분야에서 온실가스는 31%를 점유하고 있다. 작물생산 분야가 27%, 농지의 이용에서 24%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고, 농식품의 운송, 식품의 가공, 포장, 판매 등 유통과정에서 18%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다.

농지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중 16%와 곡물 생산 중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중 사료작물 재배 과정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 6%를 더하면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농식품 분야의 48%로 농식품 분야의 절반에 육박한다. 축산분야 온실가스 절감 요구가 거세지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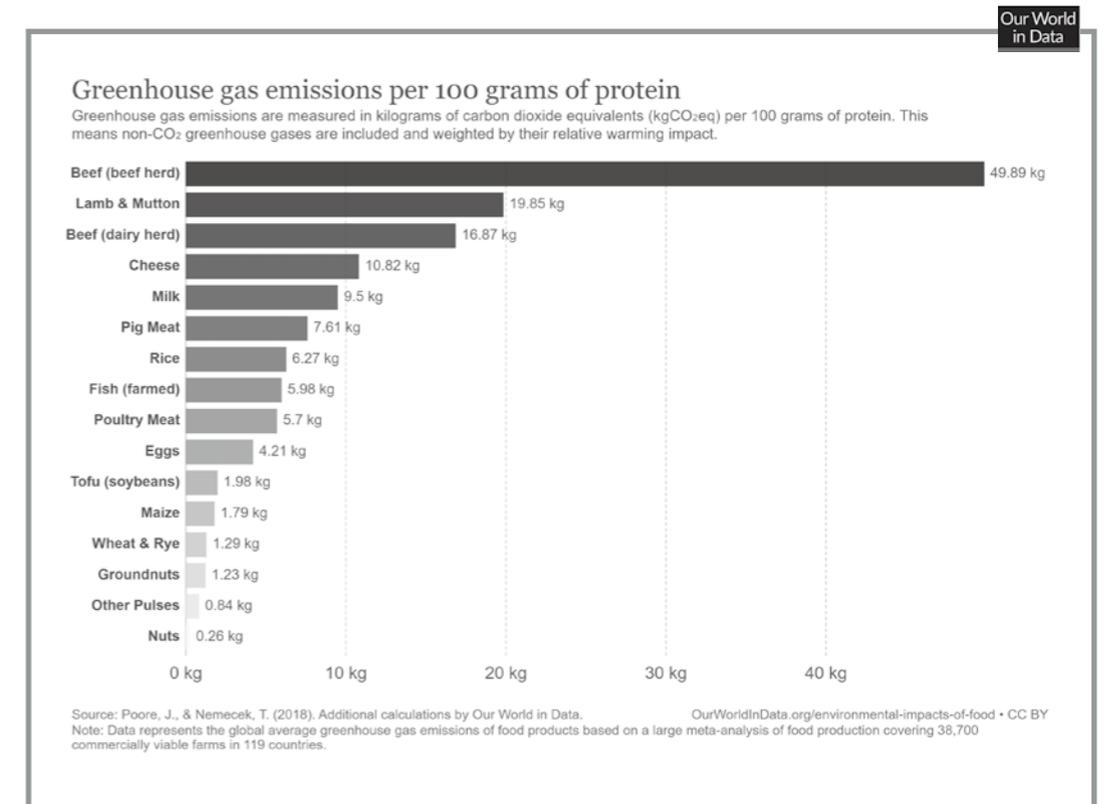
농식품 품목별 온실가스 배출량

‘Our World in Data’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단백질 100g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였다.

전용 육우의 쇠고기는 49.89kg으로 가장 많았고, 같은 반추 가축 계열인 양이 19.85kg으로 뒤를 이었다.

젖소의 쇠고기는 육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6.87kg으로 적었지만, 치즈가 10.82kg, 우유가 9.5kg 이를 합하면 37.19kg으로 적지 않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돼지고기는 7.61kg, 닭고기는 5.7kg, 달걀은 4.21kg으로 축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 쇠고기 대신 돼지고기나 닭고기가 권장되고, 육식보다는 채식이 권장되고 있다. 밀의 온실가스 발생량은 1.29kg, 콩은 1.98kg에 불과한 상황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채식을 하자는 환경운동가들의 전략은 어쩌면 잘 맞아 떨어진다 할 수 있다.



국내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큰 증감 없어

이 같은 농식품 분야 세계 온실가스 배출 통계는 국내 학자들과 언론이 생각 없이 인용하면서 국내 농식품산업 그중에서도 축산업의 온실가스 발생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오해를 사고 있다.

앞서 소개한 국제 통계를 그대로 국내 농업 분야에 대입하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농업 부문은 26%가 되고, 축산만 따로 떼어 보면 12~13%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과대 계산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2,100만 톤으로 전체의 3% 수준이었고, 2018년은 2,120만 톤으로 전체의 2.9%에 불과했다.

축산분야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축산분야는 1.3%에 불과해 농업과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수준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증감률도 살펴보면 1990년을 기준으로 에너지 분야는 164.1%, 산업공정 178.7%, 폐기물 분야가 64.7%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한 것과 달리 농업 부문은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농업계가 특별히 다른 산업과 달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은 아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 품목이었던 벼 재배가 쌀 소비 감소로 인해 재배면적이 더불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벼농사가 일반 밭농사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배 정도 많았으나, 그동안 논의 면적이 줄어들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이 감소했고, 반대로 축산물 소비가 많이 증가하면서 축산분야 온실가스가 62% 증가해서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1% 증가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분야	2017년	비중	2018년	비중
총배출량	709.7	100.0%	727.6	100.0%
에너지	615.7	86.8%	632.4	86.9%
산업공정	55.9	7.9%	57	7.8%
농업	21	3.0%	21.2	2.9%
A.장내발효	4.4	0.6%	4.5	0.6%
B.가축분뇨처리	4.7	0.7%	4.9	0.7%
C.벼재배	6.5	0.9%	6.3	0.9%
D.농경지토양	5.3	0.7%	5.5	0.8%
폐기물	17.2	2.4%	17.1	2.4%

자료 : 환경부

분야 및 부문	1990	2000	2010	2017	2018	'90년 대비 '18년 증감률	'17년 대비 '18년 증감률
에너지	240.4	411.8	566.1	615.7	632.4	163.1%	2.7%
A. 연료 연소	235.3	409.1	562.3	611.6	627.9	166.9%	2.7%
1. 에너지산업	48.4	136.3	256.1	271.0	287.6	493.7%	6.1%
2. 제조업 및 건설업	76.6	130.6	162.0	186.5	186.6	143.7%	0.0%
3. 수송	35.5	69.9	85.4	98.3	98.1	176.3%	-0.2%
4. 기타(가정, 상업, 공공, 농림어업)	74.6	69.8	55.8	52.6	52.5	-29.7%	-0.2%
5. 미분류	0.2	2.4	2.9	3.2	3.1	1616.6%	-2.3%
B. 탈루	5.1	2.7	3.8	4.0	4.5	-12.6%	11.2%
1. 고체연료	4.8	1.2	0.6	0.4	0.3	-93.0%	-19.2%
2. 석유 및 천연가스	0.3	1.5	3.2	3.6	4.1	1377.6%	14.7%
산업공정	20.4	50.9	53.0	55.9	57.0	178.7%	1.9%
A. 광물산업	18.8	29.7	31.6	36.5	35.0	86.0%	-4.2%
B. 화학산업	0.4	7.5	0.7	0.9	1.0	158.2%	1.1%
C. 금속산업	0.1	0.1	0.3	0.3	0.2	160.5%	-7.8%
E. 할로카본 및 SF6 생산	1.0	3.2	0.00013	-	-	-	-
F. 할로카본 및 SF6 소비	0.2	10.3	20.4	18.2	20.8	11875.3%	14.1%
농업	21.0	21.4	22.1	21.0	21.2	1.0%	1.1%
A. 장내발효	3.0	3.4	4.3	4.4	4.5	51.0%	1.6%
B. 가축분뇨처리	2.8	3.9	4.8	4.7	4.9	73.5%	5.9%
C. 벼재배	10.5	8.9	7.8	6.5	6.3	-40.2%	-3.9%
D. 농경지토양	4.6	5.2	5.2	5.3	5.5	18.8%	2.6%
F. 작물잔사소각	0.03	0.02	0.02	0.01	0.01	-45.5%	1.8%
폐기물	10.4	18.8	15.2	17.2	17.1	64.7%	-0.7%
A. 폐기물매립	7.5	9.5	7.8	7.9	7.8	4.6%	-0.5%
B. 하수 및 폐수처리	1.5	1.5	1.6	1.8	1.7	19.8%	-2.9%
C. 폐기물 소각	1.4	7.6	5.6	7.2	7.1	396.6%	-1.1%
D. 기타	-	0.1	0.2	0.4	0.4	-	16.7%
총배출량(LULUCF 제외)	292.2	502.9	656.3	709.7	727.6	149.0%	2.5%

자료 : 환경부

국내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살펴보니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품목은 한우와 젓소이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시한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에서의 장내 발효 배출계수를 살펴보면 젓소 착유우는 연간 106.690k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한우 비육우는 절반이 약간 안 되는 50.712kg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분	젖소		한육우		
	육성우	착유우	송아지	번식우	비육우
배출계수(kg CH4 Head-1 yr-1)	61.813	106.690	39.191	48.979	50.712
구분	면양	산양(염소)	말	돼지	사슴
배출계수(kg CH4 Head-1 yr-1)	8	5	18	1.5	20

자료 : 한국환경공단

장내 발효는 각 축종의 체중 그리고 사료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풀 사료를 먹는 가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그중에서도 반추위를 보유한 가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12월에 발행된 2020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는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그중 축산분야 온실가스 발생량은 장내 발효와 분뇨처리로 나뉘어 축종별로 나와 있다.

축우 분야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배출하고 있었다.

돼지는 18.68%, 가금류는 8.82%로 뒤를 이었다. 염소가 2.26%로 이들 품목이 전체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99%를 차지한다.

	분뇨처리(A)	장내발효(B)	(A+B)	비중
소	2,516.03	4,054.45	6,570.48	69.85%
돼지	1,399.78	357.79	1,757.57	18.68%
가금류	829.3	0	829.30	8.82%
양	0.27	0.24	0.51	0.01%
염소	167.9	44.97	212.87	2.26%
말	11.46	10.5	21.96	0.23%
기타 가축(사슴)	11.37	3.05	14.42	0.15%
합계	4,936.12	4,470.99	9,407.11	100.00%

자료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2020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 기준 비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97.1%이고 농업 분야는 2.9% 축산은 1.3% 축우는 0.9%로 환경 관련 단체들이 전개하고 있는 고기 덜 먹기 캠페인을 전개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국내 축산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10%를 감축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0.09%인 65만 톤에 불과하다.

축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총배출량	727.6	100.0%
비농업 분야	706.4	97.1%
농업	21.2	2.9%
축산	9.4	1.3%
축우(한육우·젖소)	6.5	0.9%

자료 :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주) 축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인벤토리를 활용해 산출

소는 지구의 청소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나라를 향해 기후 캠페, 기후 악당이라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국내 축산업 그중에서 축우 산업이 국내에선 다 배출 산업은 아니지만, 증가율을 놓고 본다면 그러한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우 사육두수는 2015년을 정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계속해서 사육두수가 증가해 2021년 현재 320만 두를 돌파한 상황으로 이는 역대 최대 사육두수를 기록하고 있고 언론과 환경단체들의 움직임도 쇠고기를 덜 먹자는 이야기나, 대체육류에 대한 언론과 대중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표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고 해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산업으로 낙인찍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한우를 비롯한 소는 오래전부터 환경에 이로운 여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우 먹이는 크게 풀 사료와 농후사료로 나눌 수 있다.

풀 사료는 벼짚과 목초가 성장단계에 따라 40~60%를 급여하게 되는데, 사료작물 재배는 탄소흡수원으로 역할을 하고 우분 등을 비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탄소순환을 이루는 장점이 있다. 또 벼짚을 수거해 소에게 먹이로 주게 되는데, 이를 소에게 급여하지 않고 그대로 쪼개서 활용할 경우 논에서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가 발생하게 된다. 논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 보다 소가 먹이로 먹고 일부는 에너지와 증체에 이용하고, 온실가스로 일부 방출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농후사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에게 급여하는 농후사료에는 여러 가지 원료가 들어가게 되는데,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옥수수(국내는 대부분 옥수수를 사용한다)을

축우 사료 원료

농후사료	TMR사료
옥수수	농후사료
팜박	비지
야자박	버섯부산물
대두박	쌀겨
채종박	깻묵
단백피	주정박
소맥피(밀기울)	조사료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원료가 식품 제조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사료로 이용한다. 대두박, 팜박, 채종박, 야자박, 단백질, 밀기울 등이 주로 이용되는 원료다.

‘대두박’은 콩에서 콩기름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이고, 팜박은 코코넛에서 야자유를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 채종박은 유채에서 카놀라유를 추출하

고 남은 찌꺼기다.

요리당, 물엿 등으로 불리는 액체 상태의 감미료는 주로 옥수수 등을 활용해 만드는데 단백질은 물엿을 제조하고 남은 찌꺼기다.

소맥피는 밀기울이라고도 하는데 밀가루 제조과정에서 나온 밀껍데기이다.

소의 사료에 들어가는 원료 대부분이 식품을 제조하면서 발생하는 식품 폐기물이고 이를 소의 먹이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외에도 두부나 두유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 비지, 버섯을 키우고 나오는 버섯 부산물, 쌀겨, 깻묵, 주정박(술지게미, 맥주박 등) 등도 소의 사료로 활용된다.

지구상에 약 15억 두의 소가 사육되고 있다 한다. 이들을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바라본다면 당장 쇠고기와 유제품의 소비를 줄이고, 소의 사육두수를 감축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소 사육두수가 감소하면 소들이 먹어 치우고 있는 대두박, 주정박, 단백질 등의 식품찌꺼기들로 지구는 더 심한 몸살을 앓을 수 있다.

이들 식품 찌꺼기를 치우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처리 과정에서 소가 내뿜는 온실가스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많은 식료품 가격이 폐기물 처리 비용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다.

소는 단순히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가축, 축우산업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악당 산업이 아니라 지구의 청소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축산업을 공격하는 논리 중 하나가 브라질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그곳에 소의 먹이로 사용되는 콩을 재배해 지구의 허파가 부실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하고 있다.

소의 사료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소에게 콩을 직접 급여하지 않는다. 소는 콩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인 대두박이나 두유나 두부를 만들고 남은 비지 찌꺼기를 먹을 뿐이다. 세상에 소에게 먹이기 위해 콩을 재배하는 국가나 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리용 기름을 생산하기 위해 콩을 재배하는 곳이 있을뿐이다.

이로 인해 국내 대표적 콩기름 회사인 해표나 제일제당은 기름을 짜고 남은 대두박을 활용하기 위해 배합사료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축우산업도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야

소가 지구의 청소부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파리기후협약 이후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전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배출량이 적은 분야라 해서 탄소중립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를 위해 축산업계 특히 다른 축종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축우산업은 자원순환농업, 경축순환농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유기물이 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특히 적극적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해 탄소흡수와 순환에 기여해야 한다. 이외에도 저탄소 사료의 개발과 이용, 분뇨처리 고도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에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동반할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 감축에 협조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중소규모 농가도 활용 가능한 온실가스 저감 방법의 개발과 보급에 정부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새의자 새일꾼 소개합니다



이규옥
대전·충남도지회장

충남 대전



최종효
대구·경북도지회장

경북 대구



신건호
광주·전남도지회장

광주 전남



한기웅
부산·경남도지회장

경남 부산



광주
전남

신건호 지회장

'한우산업'이라는
공동운명체 우선시 할 터
선제적 수급조절,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대구
경북

최종효 지회장

경북은 한우농가·
한우산업의 중심
한우협회 성장동력 될 수 있
도록 최선 다할 터



부산
경남

한기웅 지회장

회원농가들과
열린 소통·화합으로
한우농가 권익보호
앞장서는 도지회 만들 것



대전
충남

이규옥 지회장

국민에게 공감받는
한우산업 구현,
국민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임할 것



제주

고기정 지회장

제주한우의 특별함으로
우리 한우의 가치를
더욱 드높일 것



고기정
제주도지회장

광주
전남

‘한우산업’이라는 공동운명체 우선시 할 터 선제적 수급조절,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신 건 호

광주 · 전남 도지회장

이제 한 사람의 한우농가가 아닌 전라남도의 한우농가를 대변하게 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한우산업 발전과 한우농가의 권익보호만 생각하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신건호 전국한우협회 전남도지회장은 ‘한우산업’이라는 공동체 운명을 우선시 하는 도회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신 지회장이 생각하는 전남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축산물공판장’의 활성화이다. 전남지역에서 사육된 한우의 절반 이상이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 등 타 지역으로 반출되면서 이에 따른 물류비용 상승은 물론 체중감량과 육질저하 등으로 전남 한우농가들의 손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신 지회장은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선 무엇보다 전남지역에 있는 나주공판장 활성화가 시급하다”면서 “한우농가의 손실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관련기관, 단체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공판장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열악한 도지회의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고민하고 있다.

신 지회장은 “도지회의 재정적 어려움이 해결될 경우 한우산업 안정과 한우협회 발전 방안에 집중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다 보니 농가들을 협회로 결집시키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면서 “재정적 여건이 안정될 경우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농가들을 하나로 모으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사육밀도 준수, 수급 조절 문제는 한우농가들이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당면과제라고 보고 있다.

신 지회장은 “퇴비부숙도 문제와 면적당 사육 두수제한 문제는 사회적 요구에 비해 준비기간이 짧아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한우농가들의 인식이 함께 성장해야하는 당연한 과제라고 본다”면서 “무조건적인 규제로 받아드릴 경우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기 어려운 만큼 현장에서의 어려운 부분은 분명한 목소리를 내되,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우산업의 가장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수급조절 문제와 관련해서 지도자들

부터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지회장은 “사육두수 증가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한우협회 지도자들부터 미경산우와 경산우를 도태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의 경험들을 살펴보면 한우가격은 특정한 신호에 의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그리고 ‘순식간에’ 벌어지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 지회장은 한우농가들의 규모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규모 농가들을 중심으로 한 한우협회 회원 가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신 지회장은 “한우농가들 역시 이제 대부분 규모화가 되어서 농가소득 중 한우의 비중이 높다.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무임승차 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 “한우협회를 믿고 회원으로 가입해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야만 한우산업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대구
경북

경북은 한우농가 한우산업의 중심 한우협회 성장동력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터



최종호

대구·경북도지회장

경북은 한우산업의 중심이자, 자존심이라는 생각으로 한우농가들의 단합과 협력을 이끌어 한우협회와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종호 신임 대구경북도지회장은 한우산업에서 대구·경북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며 결연한 의지를 피력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우사육두수와 한우사육농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한우협회 내에서의 위상과 위치 그리고 역할에 한우업계와 한우인들의 기대가 적지 않아 그만큼의 부담감도 적지 않다.

최 지회장은 "한우산업과 한우협회의 발전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대구경북도지회를 이끌게 된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선배 지도자들의 발자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지회장은 '열린 소통'을 바탕으로 한우농가들의 '화합과 협력'을 도지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최 지회장은 시군지부와의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어느 한 곳, 어느 한 농가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함께 하는 한우협회 대구

경북도지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시군지부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해결에 노력하는 한편, 각종 리더십 교육을 활성화해 지도자들의 교류 확대에 연대의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우산업의 가장 큰 당면과제인 환경문제와 수급안정화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선 중앙회와 발맞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지회장은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에 대한 의무화가 시작되는 등 환경 부문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중앙회는 물론 경북도청과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농가들의 혼선과 불이익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장기적인 소 값 안정을 위해 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선제적 수급조절 사업이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회와 손발을 맞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상북도의 한우육성지원 조례 운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9년 경북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한우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변수를 만나 예산이 절반이상 삭감되는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있다.

최 지회장은 "조례 제정의 당초 목표인 경북 한우농가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우자조금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경북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겠다고 피력했다.

최 지회장은 "한우농가들의 소중한 재원으로 마련되는 한우자조금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것"이라면서 "자조금의 실제 주인인 한우농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홍보·교육·조사연구 등 적재적소에 쓰여 한우소비가 확대되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진정한 지원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산
경남

회원농가들과 열린 소통·화합으로 한우농가 권익보호 앞장서는 도지회 만들 것



한기웅

부산·경남도지회장

한우협회가 생산자단체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한우농가들의 힘과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부산·경남도지회는 회원농가들 간의 열린 소통을 통해 한우농가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도지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달 3월 24일 이·취임식을 통해 공식 취임한 한기웅 부산·경남도지회장은 ‘화합’과 ‘소통’ 그리고 ‘신퇴’를 한우협회와 도지회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생산자단체의 저력은 모두가 하나 된 ‘협력’에서 나오지만 최근 한우협회와 자조금 선거에서 촉발된 갈등과 잡음은 농가들의 단합에 장애물이 되고 있기에 화합과 소통은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로 느껴진다는 게 한 지회장의 말이다.

도지회 사무국장을 8년간 맡아오면서 시·군 지부 농가들의 현실적 어려움과 정서 그리고 도지회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 도지회장은 그동안 사무국장 과 중앙회 이사로 활동하며 얻은 소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지역보다 알차고 건강한 도지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당장의 시급한 과제와 관련해선 장기적인 한우가격 안정을 꼽았다. 한우 사육두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60개

월령 이상 한우 암소가 크게 증가하는 등 사육두수 조절에 위험 신호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한 지회장은 “최근 도매시장 한우가격은 공급량(도축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강보합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한우사육두수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지난해부터 한우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은 물론 노산우 도태를 통해 장기적인 한우가격 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경남에서도 미경산우 및 노산우 도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 환경규제 강화에 대해선 연료 자원화 등에 남다른 기대를 걸고 있다.

한 지회장은 “가축분 퇴비는 최근의 에너지화 기술을 적용해 자원화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냄새와 민원으로 축산업이 규제 대상이 되고 있지만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변환시켜

에너지화 하는 등 고체연료 가공기술 개발이 더욱 촉진될 경우 희망이 있다고 본다. 한우협회 중앙회와 (축산분뇨)신기술 개발업체와의 MOU 체결은 새로운 시도를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한우협회 중앙회와 한우자조금의 화합과 협력에 대해 강조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며 지역간 파벌과 다툼, 경쟁 등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기며 한우산업과 협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우려된다고 한 지회장은 말했다.

한 지회장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한우협회장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이 소통과 상생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만 한우산업은 물론 한우협회와 시군지부, 그리고 한우농가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견제와 갈등 그리고 아쉬운 마음은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한우산업 발전’과 ‘한우농가의 권익보호’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충남

국민에게 공감받는 한우산업 구현, 국민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임할 것



이규옥

대전·충남도지회장

항상 진정성 있는 모습과
겸손한 태도로
한우를 사랑해주는
국민에게 감사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규옥 신임 대전·충남도지회장은 인터뷰 내내 국민에게 감사한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태도를 가장 강조했다. 우리 농가들이 온 정성을 쏟아 잘 키운 한우더라도 소비자가 외면한다면 한우산업의 미래는 없다는 게 이규옥 충남도지회장의 지론이다.

도지회장으로서의 소감에 앞서 짚어줘야 할 짐이 크고 어깨가 너무나도 무겁다는 이규옥 지회장. 이 지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시기지만 고맙게도 국민들이 한우를 많이 찾아주고 있어 정말 감사하다”며 “그만큼 농가들이 한우를 잘 키우고 우수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한우협회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에 봉사하고 기부하는 모습 등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하면서 언론들과도 유기적으로 소통에 신경 쓴 결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에게 받은 사랑을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하다 보니 지원요청에 어려운 점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규옥 충남도지회장은 온 나라가 어려운 시기

를 지나고 있는데 높은 송아지 거래 가격과 소 낙찰가로 지원대책에 대한 공감대가 사라졌다고.

도청과 시청 등에 방문해 농가지원을 이야기 할 때마다 듣는 단골답변이 “다 힘들어도 한우농가는 호황이라던데 이제 자발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라고 한다. 무엇이든 농가들을 위해 지원과 속시원한 답을 받았다고 나서다가도 이러한 분위기로 흘러갈 때마다 참 난감하다는 전언이다.

이규옥 충남도지회장은 “물론 산업의 규모가 크고 활발할수록 귀농·귀촌, 청년 등 새로운 한우인이 유입되고 한우산업이 점점 더 발전하겠지만...”이라며 “참으로 어렵다”고 속마음을 털어냈다.

정책적인 고민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충남도는 구제역 백신 접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떨어진다는 통계를 봤다”며 “예산의 적절한 투입과 지원으로 한우산업을 지키고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가 힘써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그는 또 “현재 한우 사육마릿수가 높아 자칫하면 모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면서 “협회와 한우자조금은 항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한우 농가와 소비자에게 계속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선 중앙회와 한우자조금 등이 언론과 소비자 동향을 면밀하고 민첩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조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으로 농가와 국민에게 안정감을 심어주기를 바랐다.

어떤 행사든지 꼭 마지막은 소비자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로 큰 절을 한다는 이규옥 대전·충남도지회장. 그는 마지막 말을 이렇게 전했다.

“전국의 한우농가 여러분, 소비자가 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협회는 우리가 있기에 존재합니다. 서로의 감사함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겸손합시다.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소비자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시다.”

제주

제주한우의 특별함으로 우리 한우의 가치를 더욱 드높일 것



고기정
제주도지회장

한우산업은 민족산업이자 농업·농촌을 대표하는 기동산업입니다. 육지와 다른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제주만의 차별화로 더욱 높은 가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난 2018년 제주 서귀포시에서 몸무게가 1.23t에 달하는 '수퍼 한우'가 탄생했다. 제주도에 한우 사육이 시작된 지 26년 만에 가장 큰 한우였다. 주인공은 바로 제주에서 보증 씨수소를 생산하는 한우육종 농가 고기정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이다.

고기정 지회장은 “제주도는 육지와 달리 한우를 방목해 키울 수 있는 광활한 대지가 있다. 내가 한우를 처음 시작했을 땐 공동목장이라는 것도 있었다. 육지와는 사뭇 다른 점도 많지만 제주한우산업은 이런 차별성으로 더욱 특별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기정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은 2004년부터 공동목장으로 한우사육을 시작해 2007년까지는 종축개량협회에 근무하며 농장경영을 겸했다.

고 지회장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육종농가답게 개량의 힘이다. 개량의 마법과 제주도만이 살릴 수 있는 차별성을 더한다

면 한우산업의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는 “제주를 두고 천혜의 자연이라고 칭하는데,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제주한우와 자라나는 채소들이 가장 친환경적이지 않겠나”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제주한우와 제주지역만의 품종인 흑한우 등 제주한우산업의 발전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보증씨수소로 선발되는 경험을 하면서 축산인이라는 자긍심이 커졌는데, 앞으로는 제주한우의 차별성과 가치로 제주도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경험으로 한우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정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은 한우산업에 대해 “1차산업 범주에서 한우산업은 민족산업”이라며 “수출에 있어 향후 효자 산업이 됨은 물론 무너지고 있는 1차산업에 있어 방어적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축산분뇨 등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지만 축산업 과정에서 생산되는 퇴비, 조사료 생산 초지 관리 등 환경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어 한우산업의 장점을 잘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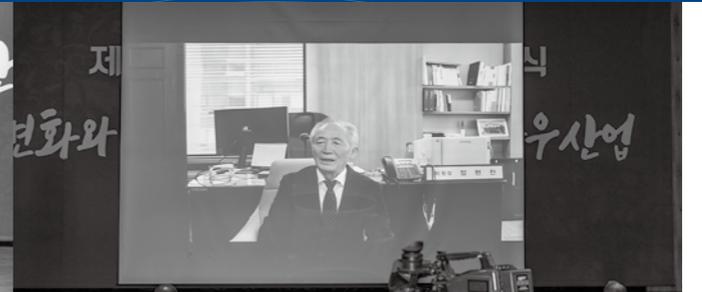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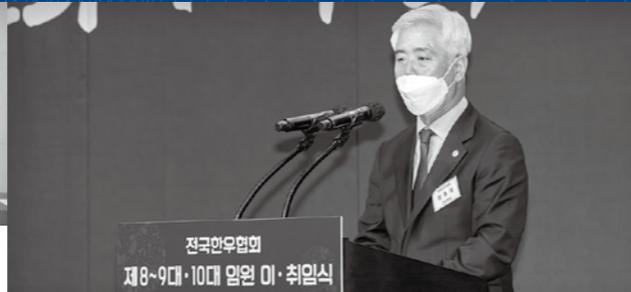
첫발을 내딛다

2021



안 정 된 한 우 산 업

함 게 하 는 민 족 산 업



사진으로 보는 제 8·9대, 10대 이취임식 현장 스케치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제한된 인원(99명)으로 진행됐다.



김삼주 회장의 취임을 축하를 건네고 있는 홍문표 의원.

안정된 한우산업 함께하는 민족산업

혁신

행사장 전경.(서울 aT센터 5층 그랜드홀)



재직기념패와 공로패를 수여받은 김삼주 회장과 김홍길 전회장, 하태문·김충완 전부회장, 류경효 이사.





이임사를 하고 있는 제 8·9대 김홍길 회장.



안정된 한우산업 함께하는 민족산업

도약

영상축사를 보내온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현찬 대통령직속 농특위원장.





안정된 한우산업 함께 하는 민족산업

축하떡자르기 등 축하 퍼포먼스



정보 마당

- 1 한우정책연구소
3월 한우동향분석
- 2 백문백답
한우사육
- 3 기고①
우리에게 다가온 위험, 소의 렘피스킨병!
- 4 기고②
우량송아지에 어울리는 MPP 사료
- 5 생활법률
소음으로 사육 한우 폐사...
인근 시멘트회사가 배상해야

한우 동향분석

■ 글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이 보고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때는
김한중 수석연구원(02-525-1053)으로 연락주시시오.



요약

(한우사육) 2021년 3월 한우 사육두수 및 가임암소 두수 전년 동월·전월 대비 증가

- 가임암소는 전년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
- 농장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규모화 진행 중
- 연령별 사육두수는 1세 미만 감소, 1~2세 및 2세 이상 증가

(등급판정) 2월 한우 등급판정두수 전월 동월 및 전월 대비 감소

-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4.3%로 전월 및 전년동월 대비 증가
- 1++ : 22.8%, 1+ : 25.8%, 1 : 25.7%

(도매 및 산지가격) 2월 한우 도매가격 전년동월 대비 상승 및 전월과 비슷, 큰암소·송아지 산지가격 전년 대비 상승

- 한우 도체 도매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상승 및 전월과 비슷
- 한우 산지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송아지·큰암소 상승·큰수소 하락 전월 대비 큰암소·큰수소 하락, 송아지 상승

(배합사료·정액판매) 전년동기 대비 2월 판매량 모두 증가

- 2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지속적인 한우 사육증가로 인해 증가
- 2월 정액 판매량은 가임암소 증가와 높은 번식의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

(쇠고기 수입) 1~2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냉동쇠고기 수입량은 감소한 반면 냉장쇠고기 수입량은 증가
- 호주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 캐나다·뉴질랜드 등에서 증가

(수급전망) 한우 사육 증가세 지속 및 도매가격 하락 전망

- 가임암소 및 정액판매량 증가로 송아지 생산 증가 예상, 한우 사육두수 증가세 지속 전망
- 사육두수 증가로 도축두수 증가 예상되며, 도축량 증가로 도매가격 하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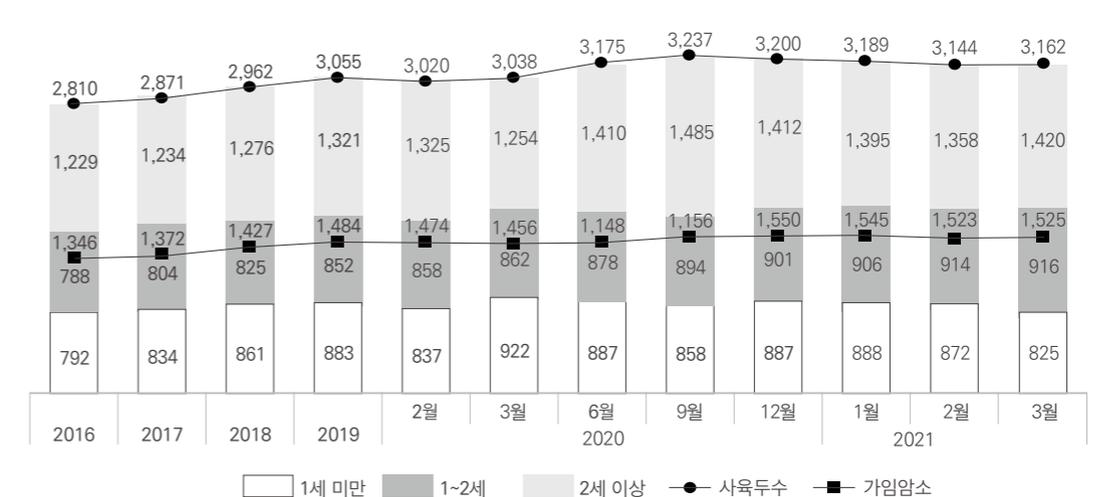
01 한우 사육동향

2021년 3월 한우 사육두수와 가임암소 두수는 전년동월·전월 대비 모두 증가

- ◆ 한우 사육두수는 316만 2천두로 전년동월(303만 8천두)보다 4.1%(12만 4천두) 증가, 전월(314만 4천두) 대비 0.6%(1만 8천두) 증가
 - 전년동월 대비 사육두수 증가는 가임암소를 비롯한 1~2세와 2세 이상 사육두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
 - 전월 대비 증가는 1세 미만 두수가 감소(1세 미만 감소는 1~2세로 이동) 했음에도 불구하고 2세 이상 두수가 큰 폭으로 증가(2세 이상 증가는 1~2세에서 이동)했기 때문
- ◆ 가임암소는 152만 5천두로 전년동월(145만 6천두) 대비 4.7%(6만 9천두)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0.1%(2천두) 증가
- ◆ 연령별 사육두수는 전년동월 대비 1세 미만은 10.5%(9만 7천두) 감소하였으나, 1~2세, 2세 이상에서 전년동월 대비 각각 6.3%(5만 4천두), 13.2%(16만 6천두) 증가
 - 전월 대비 1세 미만은 5.4%(4만 7천두) 감소한 반면 1~2세와 2세 이상은 각각 0.2%(2천두), 4.6%(6만 2천두) 증가

<그림 1> 가임암소 및 연령별 두수 현황

(단위 : 천두)



- 농장수는 89,003호로 전년동월(89,411호) 대비 0.5%(408호) 감소하고 전월(88,860호) 대비 0.16%(143호) 증가했지만 농장 감소세가 지속
- 농장당 사육두수는 35.5두로 전년동월(34.0두) 대비 4.4%(1.5두) 증가, 전월(35.4두) 대비 0.3%(0.1두) 증가

<표 1> 한우 사육현황

(단위 : 호, 천마리, %, 마리)

구분	농장수	사육두수	가임암소두수	송아지두수	연령별 두수			농장당사육두수	
					1세 미만	1~2세	2세 이상		
2016	97,498	2,810	1,346	723	792	788	1,229	28.8	
2017	94,107	2,871	1,372	784	834	804	1,234	30.5	
2018	92,238	2,962	1,427	899	861	825	1,276	32.1	
2019	89,616	3,055	1,484	945	883	852	1,321	34.1	
2020	88,879	3,200	1,550	51	887	901	1,412	36.0	
2020	3월(A)	89,411	3,038	1,456	186	922	862	1,254	34.0
	6월	89,155	3,175	1,480	383	887	878	1,410	35.6
	9월	88,893	3,237	1,546	256	858	894	1,485	36.4
	12월	88,879	3,200	1,550	148	887	901	1,412	36.0
2021	2월(B)	88,860	3,144	1,523	38	872	914	1,358	35.4
	3월(C)	89,003	3,162	1,525	42	825	916	1,420	35.5
증감율	전년동월(C/A)	△0.5	4.1	4.7	-	△10.5	6.3	13.2	4.4
	전월(C/B)	0.16	0.6	0.1	△28.9	△5.4	0.2	4.6	0.3

주 : 1. 매월1일 기준
 2. 2020년 4분기까지 분기별 '가축동향조사' 자료이며, 2021년 월별 자료는 '소이력제현황' 자료임
 3. 송아지 생산두수의 경우 2020년 4분기까지 자료는 가축동향-한우과거 3개월간 변동상황'자료이며, 2021년 2-3월은 이력제시스템-지역별 출생신고현황 당월 자료임
 자료 :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02 한우 등급판정 동향

2월 한우 등급판정두수 전월 및 전년동월 대비 감소

- 2월 한우 등급판정두수는 44,179두로 전월(97,034두) 대비 54.5%(52,855두) 감소, 전년동월(46,847두) 대비 5.7%(2,668두) 감소
 - 성별비율은 암소 45.0%, 수소 1.7%, 거세우 53.3%
 - * 전월대비 : 암소 2.6%p↑, 수소 변동 0.4%p↑, 거세우 3.1%p↓, 거세울 1.1%p↓

<표 2> 한우 성별 등급판정두수

(단위 : 두, %)

구분	계	암	수	거세	수소거세율
전년누계	134,924	58,787	1,976	74,161	97.4
('20.1~2월)	(100.0)	(43.6)	(1.5)	(55.0)	
금년누계	141,213	61,000	2,034	78,179	97.5
('21.1~2월)	(100.0)	(43.2)	(1.4)	(55.4)	
전년동월	46,847	20,493	511	25,843	98.1
('20.1월)	(100.0)	(43.7)	(1.1)	(55.2)	
전월('21.1월)	97,034	41,101	1,240	54,693	97.8
	(100.0)	(42.4)	(1.3)	(56.4)	
당월('21.2월)	44,179	19,899	794	23,486	96.7
	(100.0)	(45.0)	(1.7)	(53.3)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2월 한우 등급판정 결과 1++등급 22.8%, 1+등급 25.8%, 1등급 25.7%

- 2월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4.3%로 1++등급 22.8%, 1+등급 25.8%, 1등급 25.7%
 - 전월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은 전월(75.8%) 대비 1.4%p↓, 1++ 등급은 0.6%p↓, 1+등급은 0.7%p↓, 1등급은 0.2%p↓
 - 전년동월(73.7%) 대비 1등급 전체 출현율은 0.6%p↑, 1++등급은 0.5%p↑, 1+등급은 1.2%p↑, 1등급은 1.0%p↓
 - 전년누계(74.2%) 대비 1등급 전체 출현율은 1.1%p↑, 1++등급은 0.8%p↑, 1+등급은 1.7%p↑, 1등급은 1.4%p↓

<표 3> 한우 등급별 출현율 추이

(단위 : 두, %)

구분	판정두수	육질등급						육량등급			등외	
		1++	1+	1	소계	2	3	A	B	C		
2016	737,476	9.6	30.4	29.4	69.3	22.8	7.6	22.9	47.2	29.6	0.2	
2017	742,536	10.1	33.3	28.7	72.1	20.3	7.4	21.2	47.1	31.4	0.3	
2018	736,354	12.2	30.4	30.4	72.9	19.4	7.3	20.5	47.6	31.7	0.3	
2019	765,297	15.7	28.3	29.9	74.0	18.6	7.1	20.7	48.2	30.8	0.3	
2020	762,749	22.5	25.5	26.1	74.1	18.2	7.4	25.0	50.5	24.2	0.3	
2020	2월(A)	46,847	22.3	24.6	26.7	73.7	19.1	6.8	25.9	49.3	24.4	0.4
	1~2월(B)	134,924	22.4	24.6	27.2	74.2	18.5	7.1	24.8	49.4	25.6	0.2

구분	판정 두수	육질등급						육량등급			등외	
		1++	1+	1	소계	2	3	A	B	C		
2021	1월(C)	97,034	23.4	26.5	25.9	75.8	17.3	6.8	22.8	50.7	26.3	0.2
	2월(D)	44,179	22.8	25.8	25.7	74.3	17.7	7.5	22.9	52.7	24.0	0.5
	1~2월(E)	141,213	23.2	26.3	25.8	75.3	17.4	7.0	22.8	51.3	25.6	0.3
전월대비(D-C)		△52,855	△0.6	△0.7	△0.2	△1.4	0.4	0.7	0.1	2.0	△2.3	0.3
전년동월대비(D-A)		△2,668	0.5	1.2	△1.0	0.6	△1.4	0.7	△3.0	3.4	△0.4	0.1
전년누계대비(E-B)		6,289	0.8	1.7	△1.4	1.1	△1.1	△0.1	△2.0	1.9	0.0	0.1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03 한우 도매 및 산지가격 동향

2월 한우 평균 도매가격 전년동월 대비 상승 및 전월과 비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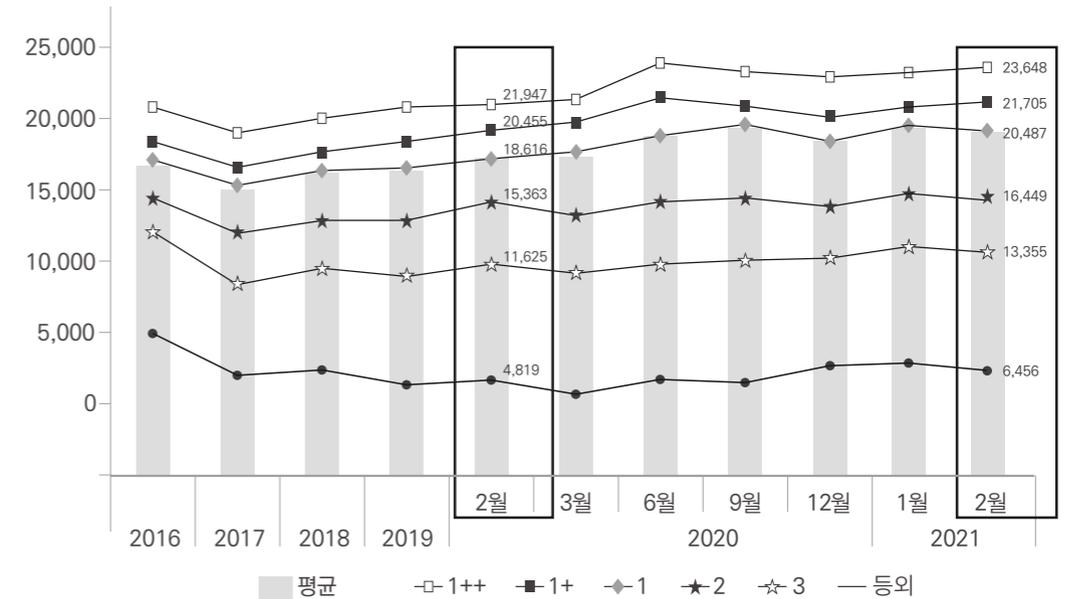
- 2월 1등급 기준 도매가격(20,091원/kg)은 코로나19에 의한 가정내 소비증가 및 설선 물 수요증가로 전년동월(18,616원/kg) 대비 7.9%(1,475원/kg) 상승, 전월 (20,487원/kg) 대비 1.9%(396원/kg) 하락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20,421원/kg)은 전년동월(18,734원/kg) 대비 9.0% (1,687원/kg) 상승, 전월(20,403원/kg) 대비 0.1%(18원/kg) 상승

<표 4>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구분	1++	1+	1	2	3	등외	평균	
2016	21,676	19,410	18,374	15,898	13,547	8,143	18,116	
2017	20,325	18,189	16,951	13,969	11,048	5,715	16,719	
2018	20,958	19,416	17,967	14,965	12,025	6,194	17,772	
2019	21,290	19,788	17,922	14,778	11,649	5,281	17,965	
2020	23,302	21,504	19,997	16,050	12,443	5,468	19,891	
2020	2월(A)	21,947	20,455	18,616	15,363	11,625	4,819	18,734
2021	1월(B)	23,648	21,705	20,487	16,449	13,355	6,456	20,403
	2월(C)	24,456	22,093	20,091	16,139	11,941	6,112	20,421
증감율	전년동월(C/A)	11.4	8.0	7.9	5.1	2.7	26.8	9.0
	전월(C/B)	3.4	1.8	△1.9	△1.9	△10.6	△5.3	0.1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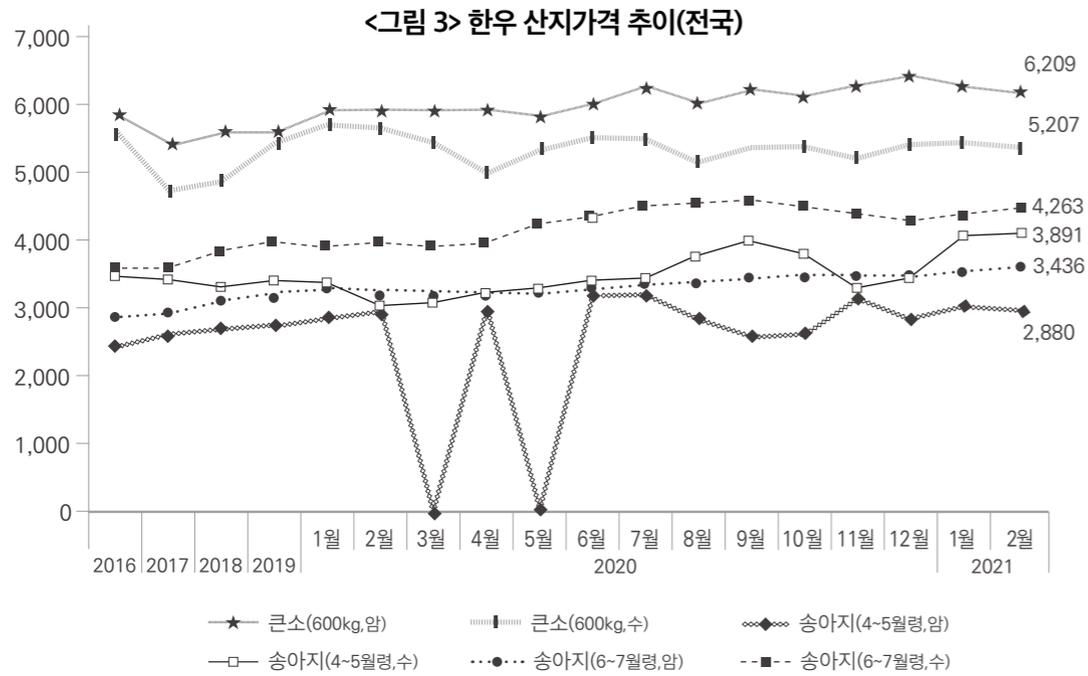
<그림 2>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2월 한우 산지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송아지·큰암소 상승, 큰수소 하락

전월대비 큰소 하락, 송아지 상승

- 2월 큰소(600kg) 산지가격은 암소의 경우 6,209천원으로 전년동월(5,893천원) 대비 5.4%(316천원) 상승, 전월(6,372천원) 대비 2.6%(163천원) 하락
- 반면, 수소의 경우 5,207천원으로 전년동월(5,479천원) 대비 5.0%(272천원) 하락, 전월(5,372천원) 대비 3.0%(165천원) 하락
- 2월 송아지(6~7개월령) 산지가격은 암송아지의 경우 3,436천원으로 전년동월 (3,202천원) 대비 7.3%(234천원) 상승, 전월(3,402천원) 대비 1.0%(34천원) 상승
- 수송아지의 경우 4,263천원으로 전년동월(3,916천원) 대비 8.9%(347천원) 상승, 전월(4,196천원) 대비 1.6%(67천원) 상승



주 : 2020년 송아지(4~5월령)의 경우 3월과 5월은 코로나로 인한 가축시장 임시폐쇄로 가격자료 없음

<표 5> 한우 산지가격 추이

(단위 : 천원, %)

구분	큰소(600kg)		송아지(4~5월령)		송아지(6~7월령)		
	암	수	암	수	암	수	
2016	5,816	5,650	2,465	3,485	2,900	3,550	
2017	5,406	4,733	2,612	3,444	2,919	3,572	
2018	5,599	4,911	2,725	3,272	3,118	3,841	
2019	5,646	5,476	2,790	3,394	3,212	3,930	
2020	6,114	5,446	3,060	3,711	3,435	4,295	
2020	2월(A)	5,893	5,479	2,960	3,068	3,202	3,916
	3월	5,943	4,983	-	3,132	3,299	3,960
	6월	6,255	5,504	3,189	4,393	3,610	4,505
	9월	6,101	5,420	2,571	3,733	3,481	4,510
2021	1월(B)	6,372	5,372	2,990	3,877	3,402	4,196
	2월(C)	6,209	5,207	2,880	3,891	3,436	4,263
증감율	전년동월(C/A)	5.4	△5.0	△2.7	26.8	7.3	8.9
	전월(C/B)	△2.6	△3.0	△3.9	0.4	1.0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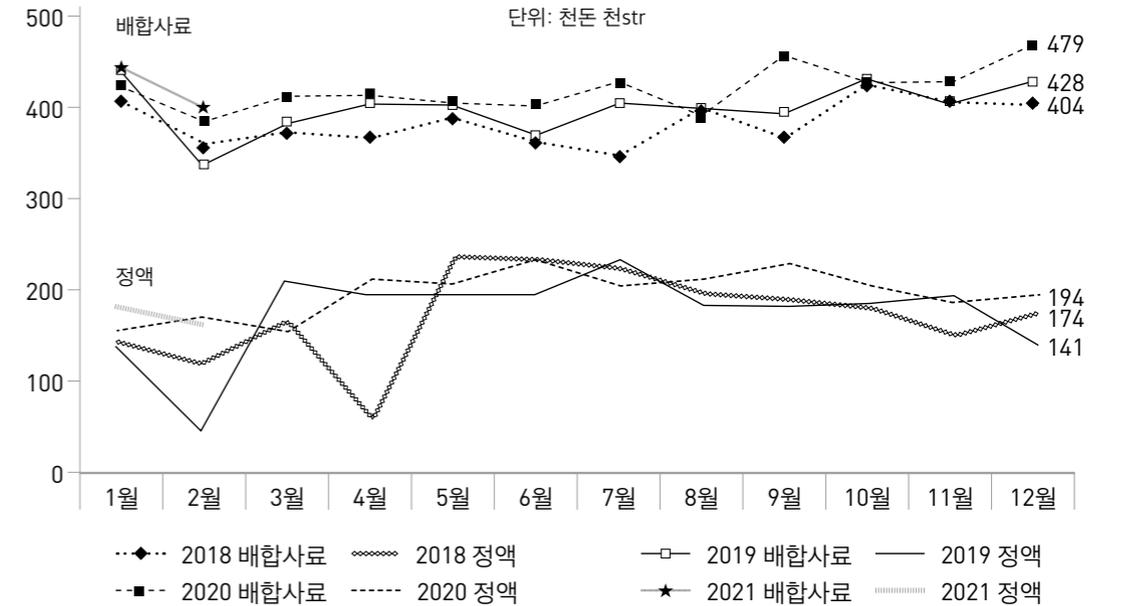
자료 : 농협축산정보센터 '산지가격동향'

04 배합사료 생산 및 한우정액 판매 동향

2021년 2월 배합사료 생산량 및 한우 정액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2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406천톤으로 전년동기(384천톤) 대비 5.7% (22천톤) 증가했으며, 지속적인 한우 사육증가가 원인으로 분석
- 1~2월 한우 정액판매량은 333천str로 전년 동기(325천str) 대비 2.5%(8천str) 증가
 - 이는 전년 대비 가임암소 두수가 증가하고 농가의 번식의향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으로 분석

<그림 4>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표 6>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단위 : 천톤, 천st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배합사료	2017	388	363	398	355	389	373	349	389	416	358	395	394	4,566
	2018	407	358	374	368	389	364	348	401	366	428	407	404	4,616
	2019	439	341	383	403	403	365	404	397	392	430	406	428	4,791
	2020	426	384	412	414	404	402	427	390	457	428	430	479	5,050
	2021	441	406											848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정액	2017	141	47	176	158	160	211	229	170	214	180	148	122	1,956
	2018	134	119	166	55	237	233	223	195	189	179	151	174	2,054
	2019	138	48	207	196	195	196	231	183	183	185	192	141	2,095
	2020	157	168	155	213	207	231	207	211	227	205	186	194	2,359
	2021	172	162											333

주 1) 2019년 2월 구제역 발생으로 정액판매가 중단(2.1~2.21) 됐으며,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와 불일치 자료 : 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5. 쇠고기 수입현황

05 쇠고기 수입현황

2021년 1~2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2.5%(1,575톤) 감소

- 1~2월 쇠고기 수입량은 6만 1천 4백톤으로 전년 동기간 6만 3천톤에 비해 2.5%(1,575톤) 감소
 - 전년 동기간 대비 냉장쇠고기는 19.3%(2,963톤) 증가했으나 냉동쇠고기 수입물량이 9.5%(4,538톤) 감소해 전체적으로 수입물량(1,575톤) 감소
- 1~2월 부위별 쇠고기 수입물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등심과 앞다리, 양지 부위가 각각 13.5%(641톤), 7.1%(561톤), 7.0%(601톤) 증가한 반면 갈비 부위는 14.3%(3,968톤) 감소
- 1~2월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호주와 미국에서 각각 4.9% (1,055톤), 3.2%(1,191톤) 감소한 반면, 기타 국가에서 14.7%(671톤) 증가
 - 기타 국가에서는 멕시코로 부터의 수입물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64.2(702톤) 감소하였으나 캐나다와 뉴질랜드로부터의 수입물량이 각각 106.1%(982톤), 99%(248톤) 크게 증가

<표 7> 쇠고기 수입 추이

(단위 : 톤, %)

구분	물량			부위별					국별		
	합계	냉동	냉장	갈비	양지	앞다리	등심	기타	미국	호주	기타
2015	297,265	245,952	51,313	115,460	38,582	31,404	42,826	68,993	112,431	164,063	20,771
2016	361,531	301,219	60,312	133,197	35,049	45,295	50,001	97,989	153,181	177,530	30,820
2017	344,271	265,665	78,606	142,659	37,517	42,648	39,031	82,416	168,502	149,935	25,834

구분	물량			부위별					국별			
	합계	냉동	냉장	갈비	양지	앞다리	등심	기타	미국	호주	기타	
2018	415,685	326,531	89,154	151,933	53,737	54,270	55,595	100,150	219,769	167,454	28,462	
2019	426,626	339,240	87,386	164,792	57,444	53,881	49,849	100,660	237,624	163,158	25,844	
2020	419,469	321,646	97,823	161,018	54,616	54,937	44,522	104,376	228,686	158,293	32,490	
2020	1월	34,527	26,088	8,439	13,414	4,837	4,417	2,606	9,253	18,731	13,332	2,464
	2월	28,448	21,500	6,948	12,389	3,782	3,501	2,128	6,648	18,368	7,984	2,096
	누계(A)	62,975	47,588	15,387	25,803	8,619	7,918	4,734	15,901	37,099	21,316	4,560
2021	1월	34,626	24,503	10,123	11,798	5,164	4,810	3,112	9,742	17,111	14,676	2,839
	2월	26,774	18,547	8,227	10,307	4,056	3,669	2,263	6,479	18,797	5,585	2,392
	누계(B)	61,400	43,050	18,350	22,105	9,221	8,498	5,376	16,221	35,908	20,261	5,231
증감율	전년동기(B/A)	△2.5	△9.5	19.3	△14.3	7.0	7.1	13.5	2.0	△3.2	△4.9	14.7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축산물검사실적)

06 수급 전망¹

2021년 한우 사육 두수 증가세 지속 전망

- 가임암소와 정액 판매량 증가로 송아지 생산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한우 사육두수 증가세는 2021년에도 지속될 전망
 - 한우 사육두수 : 2021년 6월 두수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3,363천두, 9월 3,376천두 (3.2%↑), 12월 3,325천두(3.9%↑) 전망
 - 가임암소 : 2021년 6월 두수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1,557천두, 9월 1,606천두 (3.6%↑), 12월 1,612천두(4.2%↑) 전망
 - 1세 미만 : 2021년 6월 두수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956천두, 9월 962천두 (1.6%↑), 12월 950천두(1.8%↑) 전망

1 KREI 축산관측 전망치 인용

2021년 한우 도축 증가가 예상되며,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 전망

- 2021년 한우 도축 두수는 전년대비 8.9% 증가한 83~84만두로 사육두수 증가로 가격이 하락했던 2012년 수준까지 근접 전망
 - 2021년 1분기 18만 8천두로 전년 수준 전망
 - 2021년 2분기 18만 9천두, 3분기 23만 2천두, 4분기 22만 2천두 도축으로 5~26% 증가 전망

<표 8> 한우 도축두수 전망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2021년(A)	187.6	189.4	231.6	222.2	830.9	
2020년(B)	188.2	181.1	216.8	176.7	762.7	
과거 불황기	2012	210.8	177.4	250.8	203.9	842.9
	2013	243.3	211.0	262.1	243.4	959.8
	2014	239.9	207.8	251.8	221.5	921.0
증감율(A/B)	△0.3	4.6	6.9	25.8	8.9	

- 2021년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도축량 증가로 도매가격은 7~12% 하락 전망
 - 2021년 1분기 도매가격은 19,500~20,500원, 2분기 18,000원~19,000원, 3분기 18,000~19,000원, 4분기 16,500~17,500원 형성 전망

<표 9> 한우 도매가격 전망(전체 평균 기준)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1년(A)	19,500~20,500	18,000~19,000	18,000~19,000	16,500~17,500	
2020년(B)	19,030	20,041	20,387	20,069	
과거 불황기	2012	13,534	13,305	13,116	12,620
	2013	12,560	11,682	12,919	13,938
	2014	14,002	13,885	14,744	14,426
증감율(A/B)	2~8	△10~△5	△12~△7	△18~△13	

한우사육 100문답 100답



한우 자연종부와 인공수정용 정액 활용 시 장단점과 주의 사항소의 자연종부는 브라질이나 호주 같은 광활한 방목지에서 소를 사육할 때 자연 종부를 할 수 밖에 없다. 인공수정은 적은 수의 우수한 씨수소에서 정액을 채취하여 많은 암소에 사람이 직접 수정을 하는 방법이다. 소의 정액은 일주일에 3~4회 채취할 수 있으므로 자연종부는 4회 정도 실시할 수 있고, 인공수정은 수백 두의 암소에 인공수정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자연종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민이 선발한 씨수소는 당대의 능력만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후대의 능력은 불확실함으로 사용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KPN정액은 당대와 후대의 검정을 완료하고 보증 씨수소로 선정되어 동결 정액을 생산·보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공수정을 주로 하는 정책방향이므로 인공수정의 장단점을 검토해보면 아래와 같다.

인공수정의 장점은 씨수소의 이용효율을 증대시킴으로서 가축개량을 현저하게 촉진할 수 있고, 씨수소를 생산·사육하는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씨수소의 유전력을 조기에 판정할 수 있고, 전염성 생식기 질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씨수소를 수송하는 대신 정액을 수송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원거리 수송이 가능하며, 한 발정기에도 여러 차례

정액을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수태율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자연교배가 불가능한 암컷도 번식에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공수정은 정액 자체의 질병 감염원이 있거나 정자가 가지는 불량한 유전형질의 피해가 클 수 있으며, 숙련된 기술자와 시설이 필요하고, 숙련도에 따라 교배시간이 자연종부보다 길 수 있으며, 생식기 질병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단점 등이 있다.



송아지의 거세는 어느 시기가 적당한가?

수송아지의 거세는 생후 4~6개월령에 외과적 방법으로 거세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좋으며 8개월령 이후 비육기에 하면 육질과 출하체중이 감소한다.

거세효과는 성장과 사료효율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지만 성질이 온순해져 집단사육이용이하고 비육기에 근내지방도가 증가하고 근섬유가 가늘어지며 고기의 연도가 좋아지는 등 육질 향상의 이점도 있다.

거세방법은 버디조(burdizo)를 이용한 무혈거세가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으나

거세효과가 70% 정도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고 스트레스가 적은 외과적 조기거세가 더 좋다.

/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033-330-0693) /



암소 비육 시 발정억제 방법은?

번식용 암소는 평균 21일의 발정 주기를 가진다. 통상적으로 발정기의 가축은 활동량(운동량)이 많아지고, 신경이 불안해지는 등의 증상을 동반하면서 사료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어 비육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일정기간 번식용으로 사용한

암소나 번식 경험이 없는 처녀우를 출하할 목적으로 비육시키기 위해서는 발정을 차단 하는 것이 육량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암소비육 시 발정억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발정 제어 호르몬과 같은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발정 관련 호르몬을 생산·분비하는 번식기 관인 난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로는 Melengestrol Acetate(MGA)라는 성분의 약제로 평상 시 사료에 첨가하여 함께 급여함으로써 암소의 황체호르몬 분비를 억제하여 발정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약제는 처방이 필요한 동물용 전문 의약품이므로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며, 휴약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외과적 방법으로는 난소적출기를 이용하여 난소를 절제하거나 난소결찰기를 이용하여 묶어 주는 방법이 있다. 난소결찰법은 결찰기를 질에 삽입하여 관통한 후 실리콘링으로 난소를 묶어(결찰) 난소의 기능을 정지시킴으로서 발정이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시술 시기는 미경산우는 12~15개월, 경산우는 분만 후 2개월 전후가 적합하며 시술 후 7~8개월 이상 비육을 해야 효과가 있다.

난소를 결찰하면 발정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수소와 혼합사육이 가능하고 승가 및 허용에 의한 사고 발생과 스트레스가 감소되며, 사료섭취량의 감소가 없으므로 증체 및 육질 등급이 향상된다. 난소결찰 시술농가의 출하성적을 보면 시술하지 않은 암소보다 출하 기간 단축과 육질등급이 좋아져 높은 가격을 취득하였다. 시술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미경산우의 경우에는 수소와 비슷한 체형으로 변한다.

/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033-330-0693) /



※ 출처 : 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한우사육 100문100답집 (2019. 12., 국립축산과학원)

우리에게 다가온 위협, 소의 럼피스킨병!

곤충 활동기 동안 개체 별로
꼼꼼한 증상 관찰이 중요



■ 글 · 나진주 수의연구관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이름인 럼피스킨병은 주로 흡혈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소의 해외 신종 피부병이다. 최근 서남 아시아, 동남 아시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남동부, 대만,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소와 관련된 축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럼피스킨병 확산 상황에 대비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긴급 사전 대응 교육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난 1월 FAO와 유럽 FMD위원회(EUFMD)에서 주관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대상 럼피스킨병 사전 대응 교육 내용 중 소 사육 농가와 관련 분야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럼피스킨병이란?

럼피스킨병은 포스바이러스(Poxvirus)인 럼피스킨병 바이러스(Lumpy Skin Disease virus, 이하 LSDV)에 감염되어 발생한다. LSDV는 소의 피부와 점막에 위치한 상피세포를 선호하고 여기에서 증식한다. 럼피스킨병은 럼피(Lumpy; 혹덩어리)와 스킨(Skin; 피부)의 합성어로, 소와 물소(water buffalo)에 감염되지만 사람에는 전염되지 않는 비(非)인수공통질병이다. 발생 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OIE에서도 관리대상(LIST) 질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럼피스킨병 발생국의 살아있는 소 및 소 유래 축산물은 국제적으로 이동이 제한된다. 또한

<표 1> 럼피스킨병 바이러스(LSDV)의 검출 가능 기간

구분	LSDV 검출 가능기간	출처
피부병변, 피부딱지 형태	1~3개월	Tuppurainen et al 2005
자연건조된 가죽에서 긁어낸 표피 (상온 보관)	18일	Weiss 1968
실험실 감염시킨 소에서 채취된 정액	42일	Irons et al 2005
청소 안 한 그늘진 우리 안	수 개월	FAO, OIE 자료
직사광선	즉시 LSDV 불활화됨	FAO, OIE 자료

아프리카를 벗어나 빠르게 전세계로 확산 중인 신종질병(Emerging Disease)이자 국경초월질병(Transboundary Disease)으로 국가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LSDV는 여러 겹의 단단한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특성으로 인해 환경 저항성을 나타내므로 (표 1), LSDV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청소·세척과 함께 LSDV에 효과적인 소독제(예, 2% 버콘S액) 사용이 요구된다.

2. 전세계 럼피스킨병 발생 현황은?

럼피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최초 발견된 이래로 상당 기간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1989년 최초로 아프리카를 벗어나 이스라엘에서 발생을 시작으로 중동 지역으로 확산(2012)된 이후 터키(2013)를 통해 발칸 반도에 위치한 남동유럽(그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2015)까지 퍼

<그림 1>
럼피스킨병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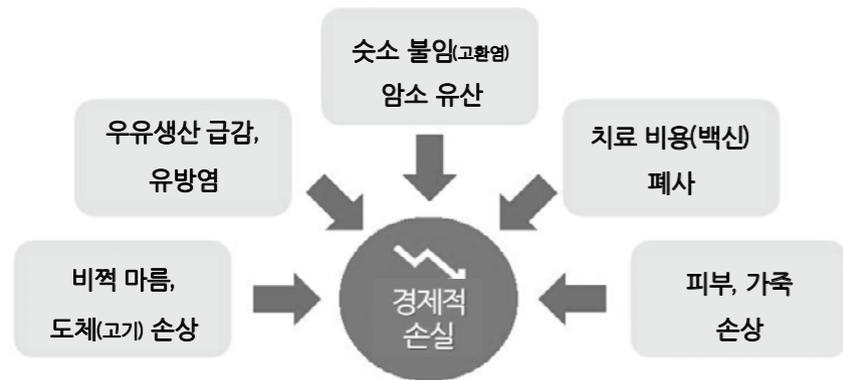


져 나갔다. 또한 러시아(2015), 인도, 방글라데시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접경 지역인 중국 신장지구에서도 2019년 9월에 보고되어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20년 6~7월 중국 남동부지역 및 인접 대만과 '20.9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국내 유입 발생 위험성이 증가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네팔('20.7), 베트남('20.11), 미얀마('20.11), 홍콩(야생소, '20.11.), 스리랑카('21.1.) 등에서 발생 보고되었으며, 해당 아시아 국가들은 연중 곤충이 활동 가능한 아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럼피스킨병의 발생 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3. 럼피스킨병은 어떤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나?

럼피스킨병에 의한 직접인 경제적 손실은 일부 감염 동물의 폐사 피해와 함께 감염 후 장기간 동물을 괴롭히는 피부·점막 결절로 인해 파생되는 증상으로 인해 주로 유발된다. 럼피스킨병에 감염되면 몸 전체를 뒤덮는 전신성의 수많은 작은 괴사성 또는 궤양성의 흑덩어리(결절)가 형성되어 가축에 영구적인 흉터를 남게 되므로 상품으로 활용할 수 없다. 또한 입안과 장점막 등 소화기 점막에도 결절 병변이 발생하여 소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심하게 수척한 상태로 수개월간 지속되므로 도체(고기) 생산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감염 소는 체중이 -6.2% ~ -23.1%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고기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우(Bos taurus taurus)와 육우(대부분 홀스타인 수소)는 럼피스킨병

<그림 2> 럼피스킨병 발생에 의한 경제적 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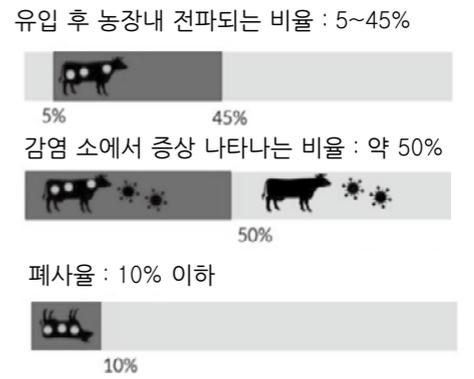


에 감수성 높은 종으로 분류된다. 어린 송아지는 더 감염에 취약하고 심각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육 젖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홀스타인(Bos Taurus)종은 감염 시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비율이 높으며, 우유 생산 양도 급격히 감소된다. 감염 젖소는 우유 생산이 -52% ~ -83% 정도 감소할 수 있다. 이외 수소에서는 고환염으로 인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 불임, 암소에서는 유산 등 번식 장애 관련 피해도 발생한다. FAO (2020)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지역에서 럼피스킨병 발생('20.10월 기준)에 따른 직접 손실액은 약 14.5억 US\$(한화 약 1.5조원)로 분석된다.

4. 럼피스킨병의 임상적 특징은?

그림3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소 100두를 사육하는 농장에 럼피스킨병이 처음 유입되어 발생하는 것을 가정할 때, 약 45두까지 감염 가능하고, 감염된 45두 중 절반인 약 23두에서 피부결절 등의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관찰될 수 있으며, 이 중 약 5두가 폐사한다고 한다. 즉, 한 농장에 럼피스킨병이 유입 발생하게 되면 폐사율은 높지 않으나 심각한 증

<그림 3> 럼피스킨병의 임상적 특징



상, 경미한 증상, 무증상 소가 혼합되어 존재하므로 럼피스킨병의 임상증상을 관찰하고자 한다면 전 두수를 대상으로 개체별로 꼼꼼히 관찰해야 한다.

5. 럼피스킨병에 감염된 소의 임상 증상은?

럼피스킨병에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나기 까지 잠복기는 4일~14일로 보고되나, 야외 발생 상황에서는 최대 5주까지의 긴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감염된 소의 초기 증상은 41.5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눈물, 콧물, 침흘림 증상이 보이며, 눈에 띄기 쉬운 체표면 림프절이 커지는 증상이 관찰된다. 또한, 착유 중인 소에서는 우유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는 증상도 관찰된다.(그림 4) 이 후 감염 소에서 지름

5cm정도의 크고 구슬처럼 단단한 피부 결절이 형성되며 개체에 따라 심각한 전신성 증상 또는 경미한 몇 개의 결절이 보이기도 한다(그림 5). 또한 피부뿐만 아니라 눈의 각막, 입 점막, 내부 소화장기, 호흡기, 생식기 등의 점막에서도 결절 병변이 생기므로, 이러한 결절로 인해 심한

눈물, 콧물, 침흘림과 함께 식욕부진, 불임(고환염), 유산 등의 증상도 동반된다(그림 6).

감염 소의 피부결절은 온 몸에서 발견될 수 있지만 특히, 머리, 목, 유방, 회음부, 항문 주변 등 털이 적은 부위에서 더 잘 관찰되므로, 개체별 임상 관찰 시 해

당 부위를 보다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그림 7). 실험감염 결과에 따르면, 감염 소의 피부 결절 형태에 따라 감염 시작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전신성의 단단하고 경계가 분명한 결절 형태는 감염 후 약 2주 경과로, 단단한 딱지가 형성되어 쉽게 떨어지

고 그 자리가 궤양화된 경우 약 3주 경과로, 궤양이 치유가 시작되면 약 4주 경과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에서 딱딱하고 쉽게 떨어지는 피부딱지가 관찰되면 해당 농가는 감염 후 최소 3주 이상 경과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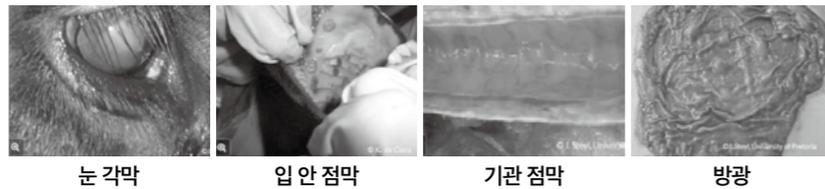
<그림 4> LSD 감염 초기 임상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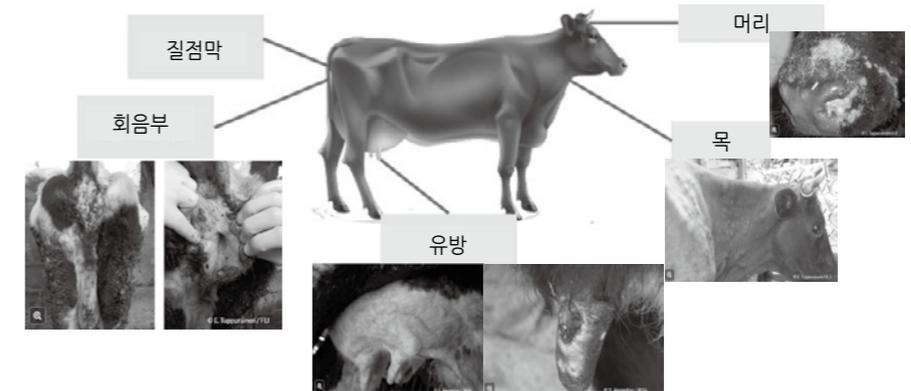
<그림 5> 럼피스킨병의 임상 증상



<그림 6> 럼피스킨병 감염 소의 눈, 입, 내부장기 점막에서 병변



<그림 7> 럼피스킨병 감염 소에서 피부결절이 더 잘 관찰되는 부위



<그림 8> 럼피스킨병 감염 소에서 피부결절 병변 진행 경과(실험감염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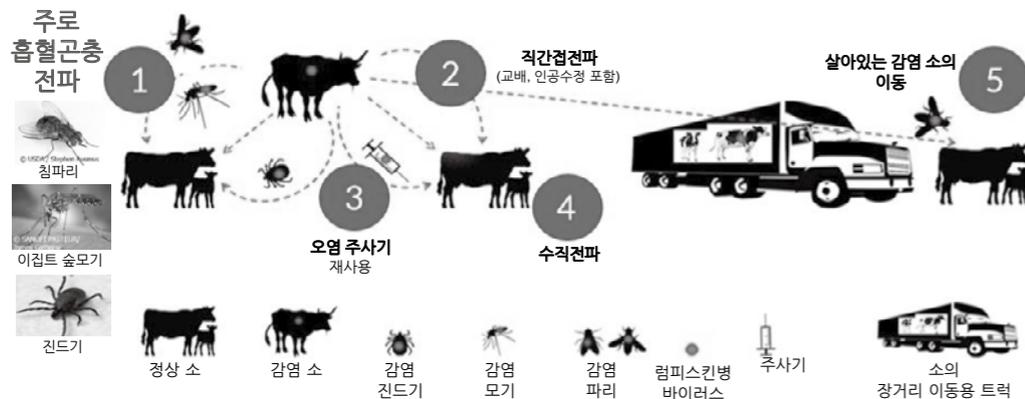


6. 럽피스킨병은 어떻게 전파될까?

럼피스킨병의 전파는 주로 흡혈 곤충인 파리류(침파리; *Stomoxys calcitrans* 등), 모기류(*Culex*종, *Aedes*종 등), 진드기류(*Ixodid*종 등) 등에 의해 발생한다. 곤충의 몸 안에서는 LSDV는 증식하지 않고 소 사이에서 바이러스를 옮겨 주는 운반체로서만 역할을 한다. (기계적 전파) 흡혈곤충에 의한 전파는 농장 반경 약 5km 이내의 짧은 거리 안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발생 지역마다 질병을 옮기는 곤충의 분포가 다르며, 국내에도 다양한 종의 흡혈 곤충이 서식하고 있어 유입된 이후 이들에 의한 질병 전파의 위험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주로 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이다 보니 곤충 서식 및 생장에 유리한 기후조건인 따뜻한 시기에 발생이 집중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또한, 감염된 동물의 피부 결절병변, 침, 눈·코분비물 등에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매개물(사료통, 음수통)을 통한 간접 전파의 가능성도 보고된다. 또한, 감염된 수소의 정액을 통한 전파외에도 LSDV 감염 소에 사용했던 주사기를 다른 소에 다시 사용할 경우, 감염된 어미소에서 자궁내 새끼로의 수직전파 사례도 보고된다. 국가 간 전파 등 장거리 전파는 살아있는 감염 소의 이동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다. (그림 9)

<그림 9> 럽피스킨병 전파 방식



7. 럽피스킨병과 구분이 필요한 유사 피부질병은?

럼피스킨병은 감염된 살아있는 소에서 특징적인 피부결절을 나타내므로 농장에서 증상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럽피스킨병에 대한 경험이 없는 국내에서는 감염 초기, 개체에 따라 약한 국소적인 피부병변 만이 관찰되는 등의 상황에서 다른 피부 질병과 구

별이 어려울 수 있다. 유사 피부 증상을 나타내어 감별이 필요한 질병으로는 피부 표면에 얇은 피부결절이 나타나며 증상 기간이 짧은 허페스바이러스성 피부병, 입 점막에서만 병변이 관찰되는 소 구진성 구내염, 유방과 유두에서만 병변이 관찰되는 가성우두 등이 있다. (그림 10) 따라서, 럽피스킨병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실험실 검사를 통한 럽피스킨병 판정이 필요하다.

<그림 10> 럽피스킨병과 감별진단이 필요한 다른 소의 피부질병



8. 렘피스킨병이 의심될 경우 신속한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

FAO, OIE 등의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동유럽지역에서 발생을 경험한 유럽연합식품안전청(EFSA)는 렘피스킨병의 첫 발생(index case)을 현장에서 곧바로 인지·신고하여 조기 검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소 농장주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수의사, 도축장 종사자 등)가 렘피스킨병의 임상증상에 대해 잘 인지하고, 의심되었을 때 즉시 관찰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야 한다.

렘피스킨병이 발생한 동유럽국가와 서아시아국가의 사례를 근거로 첫 발생건(Index case)을 조기에 검출한 후 살처분과 함께 신속한 백신접종 정책을 수행

할 경우 질병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한다. 유럽연합(EU)에서는 렘피스킨병 방역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동유럽국가 중 발생 및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의무화하였고, 의심증상 신고를 통해 감염동물을 색출하는 수동적인 예찰과 함께 곤충 활동기(4월부터 10월)에 능동적인 임상 예찰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6년 7,483건에서 2017년 385건으로 발생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2018년 이후로 발생 건이 보고되지 않아 질병 근절에 다가서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EU는 발생 및 위험 지역 대상으로 의무적인 백신접종과 정기적 임상예찰이 렘피스킨병을 근절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상업화된 렘피스킨병 백신은 모두 생백신(병원성을 약화시킨 살아있는 바이

러스 함유) 형태이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비발생 청정국가에서는 안전성, 교역 등의 여러 이유로 현재의 상황에서 사전 백신접종은 권장되지 않는다.

추가로, 질병 전파 흡혈곤충 수를 줄이기 위한 농가의 노력도 필요하다. 곤충 번식 장소로 작용하는 물 웅덩이(타이어 등)를 제거하고 퇴비장에 덮개 처리, 파리 끈끈이 활용 등을 시도할 수 있으나, 곤충구제를 위한 대대적인 살충제 살포는 주변 환경과 꿀벌 등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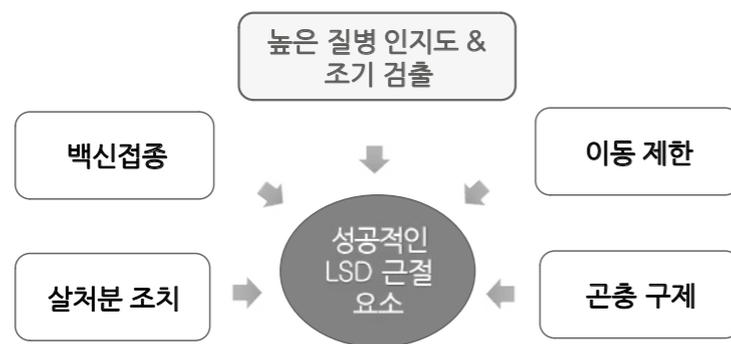
렘피스킨병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그동안 거의 무시되어 왔던 소의 신종 질병인데 최근 중동을 거쳐 동유럽 지역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렘피스킨병에 대한 전세계 발생 동향을 파악하여 유입 위험요소 대상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심축 발생을 대비하여 국내 정밀 진단 체계를 확립하고 국제 진단 숙련도 검사에 정기 참여하여 객관적인 진단 능력도 평가받는 등 사전 대비를 진행하고 있다.

렘피스킨병이 유입하여 확산하게 되면 백신접종 없이 이 질병은 근절하기가 거

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만에 하나 국내에 유입한다면 최초 발생(index case) 건을 조기에 검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홀스타인 젖소에서 더 감염이 잘되고 증상도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젖소에서 먼저 증상이 관찰될 가능성이 높다.

유입 위험이 높아진 지금, 농가에서는 곤충 활동이 시작되는 4월부터 매일 전체 사육 소의 이상 증상을 개체 단위로 꼼꼼히 살피고, 농가 차단방역을 준수하고 위생 수준(청소 및 소독)을 더욱 높여 청결한 농장 환경을 조성하며, 사육 농장 안 및 주변에 서식하는 흡혈 곤충 수를 줄이고, 접종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지 않는 등의 방역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발생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고열과 함께 눈물, 콧물, 침흘림 등을 보이며, 렘피스킨병의 특징인 수많은 2~5cm 크기의 피부결절이 확인되는 등 의심 증상이 발견되는 즉시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린다.

<그림 11> 렘피스킨병의 성공적인 근절 요소



※사진 및 그림 출처 : FAO/EUFMD 주관 렘피스킨병 virtual e-learning 교육 자료

우량송아지에게 어울리는 MPP 사료



■ 글 · 김웅 부장
(카길애그리퓨리나 전략마케팅부)

지난 기고 “우량송아지를 확보하는 자가 승리한다” 에서 밝혔듯이, 앞으로의 한우사업의 성패는 우량 송아지 확보와 초기성장 극대화에 있다.

우량 송아지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일관 사육 비율이 높아지면서 우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두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좋은 송아지는 직접 비육하고 판매로 이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은 현상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등급판정제도 개정 이후, 많은 농가들이 사육 개월을 단축하면서도 증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육 방식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송아지 시기의 초기성장 극대화, 즉 우량 송아지 생산이 수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량 송아지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먼저 체중측면에서는, 아래 표의 베스트 체중보다 높은 체중의 송아지를 우량 송아지라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6개월령의 숫송아지가 176kg을 상회한다면 ‘초기성장’이 잘 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단위: kg)

월령	0	1	2	3	4	5	6
암송아지 체중 하한선	24.7	37.5	52.2	70.2	89.2	110.8	134.2
암송아지 베스트 체중	27.1	41.3	57.3	77.2	98.1	121.9	147.5
숫송아지 체중 하한선	27.5	42.0	59.1	80.8	104.3	130.8	160.0
숫송아지 베스트 체중	30.3	46.2	64.9	88.8	114.7	145.1	175.9

하지만 송아지의 체중이 초기성장의 주요한 지표인 것에 쉽게 동의할 순 있겠으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번식 전문 농장에서 8~10개월령의 화우 송아지를 비육 전문 농

장에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거래 가격이 송아지의 생체중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살을 찌우려고 비육사료를 급여하는 농장이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송아지 시기의 무리한 비육(과다한 에너지 공급)은 반추위의 발달을 저해시키고 이는 비육 후기에서 입담음 현상 및 성장 정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화우 비육 전문 농장은 송아지의 망가진 반추위를 회복시키기 위해 입식 후 4개월 간 양질의 건초 위주로 사양관리를 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우시장에 거래되는 송아지가 어떻게 사육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체중이 큰 송아지가 선호되면서도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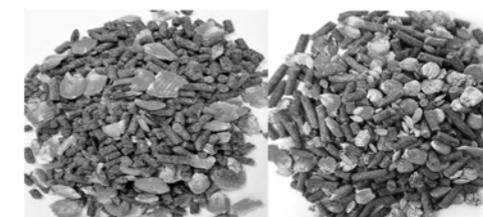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골격, 체중 등 눈으로 보이는 성장 뿐만 아니라 반추위 용모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이 동반된 송아지가 바로 우량 송아지라 할 것이다.

골격과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많이 먹어야 한다. 들어가는 것이 많아야 나오는 것이 많은 것은 대단히 상식적인 결과이지만, 반추동물인 송아지에게 특히 반추위가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시기

인 5~6개월령까지의 송아지에게 단순한 펠릿 형태의 배합 사료량을 늘리게 되면 반추위가 망가지기 십상이다. 반추위 용모 및 용적을 발달시키기 위해 양질의 건초 위주로 급여하게 되면 배합사료 섭취량이 줄게 되어 체중의 성장은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한다.

근골격과 반추위 발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은 없을까?

이를 위한 최근의 세계적인 트렌드는 바로 텍스처 형태(MPP : Multi-particle pellet)의 송아지 사료이다. 송아지 사료에 주로 쓰이는 텍스처 원료인 후레이크 콘, 통귀리, 루핀은 외피의 높은 NDF로 반추위 발효 속도를 조절하여 많이 먹어도 pH가 떨어지지 않게 도움을 주고, 단단한 물리적 특성은 반추위 용모의 곁에 쌓이는 케라틴을 제거하여 용모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배합 사료를 많이 먹으면서도 반추위가 안정되어 설사를 하지 않고 반추위 용모까지



<그림 1> 입붙이기 MPP 사료(왼쪽)와 어린송아지 MPP 사료(오른쪽)

잘 발달하는 형태의 사료가 바로 MPP 사료이다.

송아지의 반추위 발달 단계

반추위 발달은 송아지 성장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반추위의 크기 뿐만 아니라 반추위 내의 용모가 건강히 발달되어야 사료의 소화와 영양소의 흡수가 원활히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MPP 사료는 반추위 발달 단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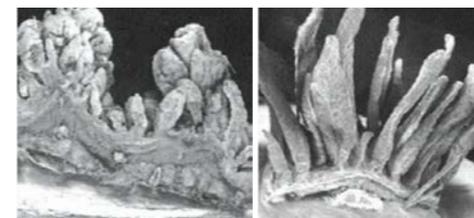
송아지의 반추위 발달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분만 이후 2단계에 걸쳐서 서로 다른 반추위 발효 전략이 권장된다. 1단계는 송아지사료 섭취량이 많지 않은 포유기로, 이때는 반추위 내에서 부틸산과 프로피온산이 많이 생성되도록 전분과 당을 이용한 반추위 발효를 유도해야 하는데, 부틸산과 프로피온산은 반추위 용모돌기의 크기를 발달시키면서 용모 상피세포의 흡수능력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단계 급여 사료, 즉 입붙이기 사료에는 전분과 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유리하다. 2단계는 송아지의 사료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단계로 이유 이후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반추위 환경

이 중요해서 젖산 생성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2단계에 급여하는 일반적인 어린송아지 사료에는 전분과 당의 함량을 이전보다 줄이고 NDF(중성 세제불용성 섬유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텍스처 사료의 역할

1단계 입붙이기 사료를 통해 전분 공급을 높이고, 특히 소화율이 좋은 호화 전분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MPP 형태의 입붙이기 사료를 제조할 수 있다. 전분함량이 높은 옥수수, 귀리, 보리 등을 마이크로나이징(micronizing: 초고온 순간 가열 가공법) 처리하여 펠렛과 혼합 공급하면, 100% 펠렛사료 대비 총 전분 뿐만 아니라 호화 전분의 공급량도 높일 수 있다. 이들 전분은 반추위 내에서 빠르게 발효되어 부틸산과 프로피온산을 만들어내고, 반추위 용모 발달에 큰 기여를 한다.

2단계 어린송아지 사료 역시 텍스처 형태로 제조되어야 한다. 후레이크, 옥수수, 통귀리, 루핀 등 단단한 형태의 사료는 반추위를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발달시킨다. 통귀리와 루핀 외피의 높은 NDF는 반추위 발효 속도를 조절하여 반추위의 산도가 떨어지지 않게 도움을 준다.



<그림 2> 반추위 용모돌기에 케라틴이 축적된 상태(왼쪽) vs 정상적인 반추위 용모돌기(오른쪽)

또한 텍스처 사료의 단단한 물리적 특징은 반추위 용모 상피세포에 쌓이는 케라틴을 제거하여 영양분의 원활한 흡수를 돕는다. 케라틴이 제거되지 못하고 용모에 쌓이게 되면 용모의 발달을 약화시키고 휘발성 지방산의 흡수를 저해한다. 이러한 텍스처 사료의 장점은 여러 실험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표 1>은 사료의 형태에 따른 소화율의 차이를 보여준 실험 결과이다. 8주령된 송아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같은 영양소의 사료를 급여하되, 한 그룹은 펠렛 형태로 다른 그룹은 텍스처 사료의 형태로 사료를 급여하였다. 결과를 보면 텍

<표 1> 펠렛과 MPP(텍스처) 사료의 소화율 차이

영양소 소화율	펠렛	텍스처
건물	71.3	76.3
단백질	77.5	78.2
지방	69.4	73.9
가용무질소물	77.4	81.6
NDF	39.7	51.9

(출처:Porter et al,2007)

스처 형태의 사료를 먹은 송아지가 건물, 지방, 가용무질소물(주로 전분), NDF에서 높은 소화율을 보인다.

또 다른 비교 실험 결과인 <표 2>를 보면, MPP(텍스처) 사료의 급여가 펠렛 사료 보다 체중 및 배합사료 섭취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적절한 가공원료가 적용된 MPP(텍스처) 형태의 입붙이기 사료 및 어린송아지 사료는 반추위 발달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반추위의 발달은 송아지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하루 3kg을 먹고 1kg 이상 증체되는 송아지와 하루 10kg을 먹어도 1kg 증체되지 않는 비육후기우를 비교해 보면 답은 정해져 있다. 송아지 초기성장 극대화를 위한 MPP(텍스처) 사료. 여기에 그 해답이 있다.

<표 2> 0주령에서 8주령까지의 송아지를 이용한 펠렛과 MPP(텍스처) 사료의 비교 연구

	펠렛 사료	텍스처 사료
종료 십자부고	89.66	90.68
종료 체중	76.25	80.51
총 증체	36.02	39.51
일당증체량	0.644	0.708
대용유 섭취량	21.45	21.45
배합사료 섭취량	51.75	52.11

(출처: 미네소타 대학,2009)

소음으로 사육 한우 폐사... 인근 시멘트회사가 배상해야

■ 글 · 법률신문 이용경 기자(yklee@lawtime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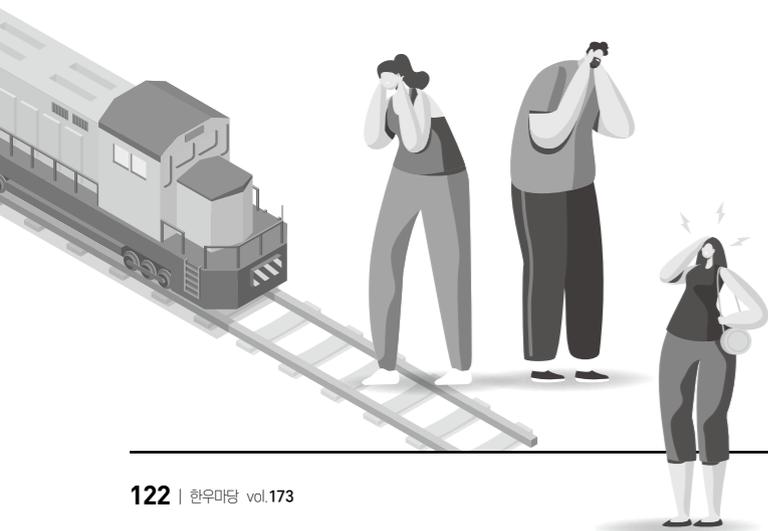
농장 한우들이 인근 시멘트 회사의 화물 운송용 열차와 철로에서 나는 소음으로 폐사했다면 시멘트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A씨가 한일현대시멘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77766)에서 최근 “피고 회사는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3년부터 충북 제천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장을 운영해왔다. A씨는 피고가 시멘트와 유연탄 등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철로를 설치해 열차를 운행해 한우가 폐사하거나 번식률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3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1992년 무렵부터 영월공장에서 인근 입석리 철도역까지 5km 구간에 자체 철도 전용선을 설치해 영월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멘트와 유연탄 등의 화물을 편도로 1일 평균 13

회가량 운송했다. 다만 철로 운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심야 시간인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운행하지 않았고, 운행 속도도 시속 25km로 제한했었다.



하루 운송열차 13차례 운행 기준치 넘는 소음 탓

신 부장판사는 “소음으로 인한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라며

“이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양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르면, 순간 최대소음이 70dB(데시벨)을 넘으면 한우의 유산과 폐사 등을 초래하고, 등가소음이 60dB을 넘으면 한우의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을 초래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수인한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면서 “A씨 농장에서의 소음 측정 결과는 가축에 피해를 주는 기준인 등가소음이 60dB, 최고소음도 70dB을 넘는데다, 그 주요원인은 열차가 통과할 때 발생하는 스킵소음 등으로 확인돼 가축을 사육하는 A씨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철로 운행으로 소음이 발생함을 인식했으면서도 사육 두수를 늘렸고, 피고도 소음 감소를 위해 운행시간과 속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며 “감정 결과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피해액을 한우의 폐사와 수태율 저하 등 총 3000여만원으로 평가한다. 피고는 그 중 70%인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우자조금

한우 9개 신규 구이용 부위 도출

목갈비, 양각살, 새우살 등 한우고기 신규 부위가 도출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발주하고 공주대학교(연구책임자 : 김학연 교수)에서 연구된 ‘한우고기 부위별 세분화 및 활용방안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금번 연구는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한우고기 부위별 명칭을 정립하고 한우고기 대분할 및 소분할 부위별 발골과정을 통해 신규부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가 진행됐다. 연구에서는 한우고기에 관한 지역별 다양한 용어들의 존재를 파악했다. 목심살의 경우 멩예살, 쇠약지, 부채살의 경우 낙엽살, 복판살, 꽃잎살, 아래등심살은 갈비등심, 갈비살은 제복살, 토시살은 토시목, 제비추리는 작은 안심 등 부위별로 다양한 용어로 혼재되어 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연구에서는 기존의 10개 대분할 및 39개 소분할에 대한 특징 및 발골과정(방법)을 영상으로 제시하고, 소분할 과정을 통해 구이 및 탕용으로 활용 가능한 9개 부위를 새롭게 도출했다. 향후 비선호 부위 소비촉진에 해당 부위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QR로 확인가능)

소식이 궁금하다면?

새로운 9개 부위 : 목갈비(목심부위), 양각살(앞다리), 새우살, 등심날개살, 등심등살(등심), 꼬들박이(양지), 채끝추리(채끝), 안심추리(안심), 뽕살(설도)



제5기 한우자조금 대의원 의장, 감사, 관리위원장 당선증 전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새롭게 선출된 제5기 대의원 의장, 감사, 관리위원장에 지난 3월 31일 한우자조금 2층 대회의실에서 당선증을 전달했다. 대의원의 의장은 정인철(울산)이 단독 출마로 당선됐으며, 감사는 김상록(홍천), 이동환(포항)후보가 출마해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에 의거 후보자의 수가 배정된 인원수와 동일해 무투표당선 되었다. 관리위원장은 대의원 245명을 대상으로 29~30일 이틀간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의원 233명이 참여하여 95.1%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민경천 후보는 121표를 얻어 3선에 성공했다. 민경천 위원장은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장과 광주전남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한우협회 이사, 한우자조금 대의원을 거쳐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를 이끌어오고 있다. 민 위원장은 “한우협회 시군 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 농협, 한우협회와 연합해 새로운 마음으로 한우 농가와 소비자를 위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업계소식

2020년 생산 국내 저수분 폴사료 품질 '양호'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지난해 생산된 저수분 폴사료(겨울 사료작물) 품질을 검사한 결과, B등급 이상이 73.4%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밝혔다. 2020년 폴사료 품질검사는 전국 경영체 중 717곳에서 생산한 6,366개 시료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분석 대상인 폴사료 초종은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가 8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호밀(5.4%), 청보리(2.1%)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생산된 우리나라 겨울 저수분 폴사료는 5개 품질등급 가운데 상위 등급인 A등급 12.7%, B등급 60.7%로 전체적으로 품질이 양호했다. 품목별로 헤일리지는 A등급 14.1%, B등급 58.7% 수준을 보였고, 건조는 A등급 7.2%, B등급 69.1%로 나타났다.

우성사료 사료 포대 개봉을 쉽고 간편하게

“이지오픈(Easy open)으로 쉽게(Easy) 안전하게” 우성사료(대표이사 한재규)가 제품의 품질 향상과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축종의 종이 포장 제품에 대하여 이지오픈(Easy open) 시스템을 적용해 농장에서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고 있다. 이전 포장 제품의 경우 실로 개봉하여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농장에서 제품을 개봉하기 위해서는 매듭을 찾아 풀거나 칼 또는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바쁜 농장의 현실에서 서두르다 보면 손가락을 다치거나 칼날 또는 금속성 물질이 사료에 혼입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반면, 이지오픈사료포대는 테이프를 손쉽게 한 번에 당겨 포장을 개봉함으로써 작업 효율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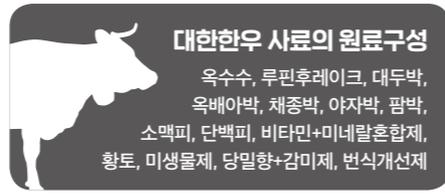


카길, 국내 4개 사료배합공장 HACCP '적합' 판정

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 박용순)의 국내 4개 사료배합공장이 올해에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HACCP 정기 심사에서 ‘적합(무결함)’ 판정을 받았다. HACCP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다. 카길 애그리퓨리나는 작년에 이어 4개 모든 공장이 무결함을 의미하는 ‘적합’ 판정을 받으며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이로써 김해·정읍·군산·평택 공장은 각각 10년, 5년, 4년, 3년 연속 HACCP 적합 판정을 받게 됐다. 박용순 카길애그리퓨리나 대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을 생각하는 전 직원이 ‘안전’에 대한 카길의 철학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한 것이 오랜 기간 꾸준한 HACCP 인증 비결인 것 같다”며, HACCP 심사 적합 판정으로 안전한 사료 제조라는 카길애그리퓨리나의 목표를 한 번 더 입증할 수 있게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 OEM사료

- 한우농가들이 생산한 OEM사료로 사료품질·가격 표준 역할
- 농가주도적인 파격적인 원가공개·사료가격 기준



대한한우 고급육 사양관리 프로그램

비육 구분	어린송아지	육성기														비육전기								비육후기								비고					
		대한한우														대한한우								대한한우													
생후 월령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출하월령 28개월 이상												
체중 (kg)	150	180	200	220	240	260	290	320	350	380	420	450	480	510	540	570	600	630	650	670	690	710	730	750	출하체중 750kg 이상												
일당중체량(kg)	0.8		0.8 - 1.0														1.0 - 1.2								0.6 - 0.8								0.84 kg				
조사료	건초	2.0	2.0	자유 채식														2.0	2.0	1.0																	기타관리
배합사료	배합	3.0	3.0	3.0	3.5	4.0	4.5	5.0	5.5	6.0	7.0	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기타관리				
단계별 사양관리 주의점	설사 및 호흡기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능하면 건초 자유급여 반추위와 소화기관 발달시켜 튼튼한 비육밀소를 만들(기초체형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성장 발달이 왕성한 시기로 충분한 사료 급여에 의하여 골격과 근육성장이 충분히 발달되도록 하는 시기 사료는 영양균형에 맞추어 정확히 급여 근육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근간지방 최고 피하지방 부착이 만들어지는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하지방 최고, 근육내 지방부 착 되어 지방교잡이 이루어져 육질이 마무리 되는 시기 육색과 지방색을 위하여 녹색 건초나 청초급여 금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육축진제와 항생제는 사용하지 않음 비육마무리 단계에는 개체별 발육차이가 있어 출하시기를 조절할 것 애정(사랑) 가득한 사양 관리 요망 					
		중요포인트	구충	버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세 실시 음수조 철저 관리 미네랄 블록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사내 환기 관리 요결석 관찰 여름철 그늘막 설치 및 선풍기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후 23개월령에 1차 초음파 측정 출하 2개월전에 2차 초음파 측정(육량과 육질 조절) 																														

대한한우 번식우 사양 프로그램

사육 구분	번식우육성(반추위, 소화기관 완성기)															임신우										포유우										
	대한한우															대한한우																				
월령 (개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경산우										포유중														
체중 (kg)	130	150	170	190	210	230	250	270	290	310	330	350	370	390	410	430	450	470	490	510	520		0.6													
일당중체량 (kg)	0.6 ~ 0.8															0.4 ~ 0.6										임신우										
1일사료 급여량 (kg)	구분	번식용 중송아지															임신우										임신우									
	배합	2 ~ 3 kg															3 ~ 4 kg										4 kg									
증감 요인	조사료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중감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 10%정도 증가시켜 줄 것 임신 7개월부터 10%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단계별 사양관리 주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화기와 반추위 등을 발달시켜 튼튼한 밀소를 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정과 수정율을 높이기 위하여 생식기에 지방 침착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적으로 과비가 되지 않도록 운동은 충분히 시키며 영양의 불균형이 없도록 할 것 임신초기에 영양균형을 맞추어 주면 송아지때 설사를 방지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발정과 수정을 위하여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급여할 것

사료가격 투명화 / 합리적 가격 / 생산비 절감

고품질 한우사료 '대한한우'

한우 생산비 중 농가소득을 좌우하는 사료비 비중이 50%이상!

사료가격 결정의 주체는 **농민**이 되어야 합니다

※ 매월 1일 환율 및 유가(곡물가) 변동 등에 따라 기준가격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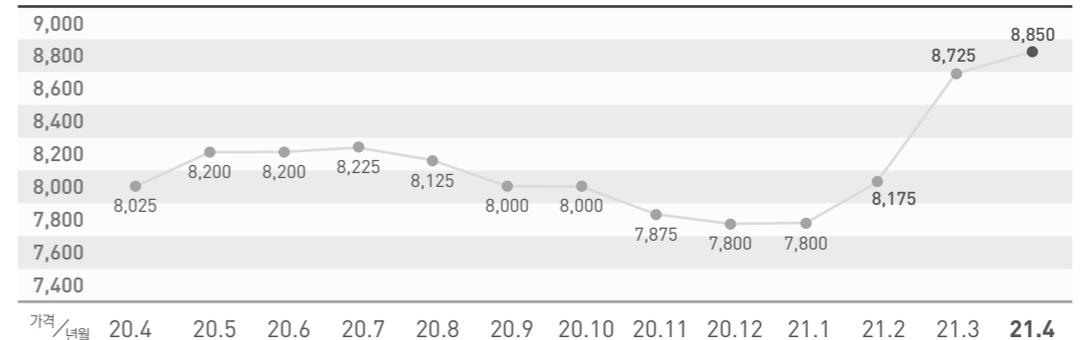
21년 4월 협회전용 사료 '대한한우' 가격 안내

공정출고가 기준(운송비 등 추가비용 반영안된 가격임)



육성 8,850 **번식우 8,500** **비육전기 8,775** **비육후기 8,875**

대한한우 사료 가격 변동 추이 (육성우 기준)



협회전용사료 문의 ☎ 02-525-1053 (내선 208)

대한한우 육성기

적용범위 생후7개월~14개월

대한한우 육성기사료 특성

-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 골격과 내장의 발달을 촉진
- 적정에너지 공급
- 섬유소 공급에 의한 반추위와 소화기관 안정화
- 높은 수준의 비타민과 균형 있는 미네랄 공급

대한한우 비육전기

적용범위 생후15개월~22개월

대한한우 비육전기사료 특성

- 반추위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 최대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 비타민 A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을 향상
-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영양소 균형
- 비육효과를 최대로 발현시키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필요

대한한우 비육후기

적용범위 생후7개월~14개월

대한한우 비육후기사료 특성

-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충분한 영양소 공급
- 근육내 지방 발달을 극대화시켜 육질을 향상
- 단백질과 에너지의 균형 있는 배합
-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영양소 균형
- 고급육 효과를 최대 발현시키기 위하여 TDN을 높여 줌
- 비타민 A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을 향상
- 과비방지
- 비육효과를 최대로 발현시키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필요

대한한우 번식우

적용범위 생후5개월~11개월

대한한우 번식우사료 특성

- 발정과 수태율 최적을 위한 충분한 영양소 공급
- 번식전용 비타민/미네랄 설계
- 황토급여에 의한 미네랄 보충
-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한우개량 / 선제적 수급조절 / 신시장 개척 한우개량촉진·소값 안정화에 동참합시다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시행 안내

대상농가

3년평균(18~20년) 미경산우 출하두수가
60두 이하인 농가
※ 3년동안(18~20년)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는 제외

출생기준

2019년 11월 1일~2020년 6월 30일 출생개체

대상개체

1순위 유전능력 하위 30% 이내 선발 개체
2순위 이모색, 난폭우, 발육부진우
3순위 미등록우 및 기초등록우

약정두수

• 자조금 지원개체 1농가당 최대 20두
• 「자조금 지원대상 개체」와 「자율감축참여 개체」
1:1 매칭
※ 예) 10두 약정시 농가자율감축 10두 필수

제외대상 개체

프리마틴, 농장주와 소유주 불일치 개체(위탁사육),
시행일 이후 양수/양도가 확인된 개체 등

농가보전금

• 자조금 지원대상 개체에 한해 1두당 40만원 지급
• 약정 개체는 도축시점(36개월이내)까지
미경산우로 비육(송아지 생산금지)
• 소유주 변경이 불가(양도/양수 금지)

신청서 접수기간

2021년 5월 말까지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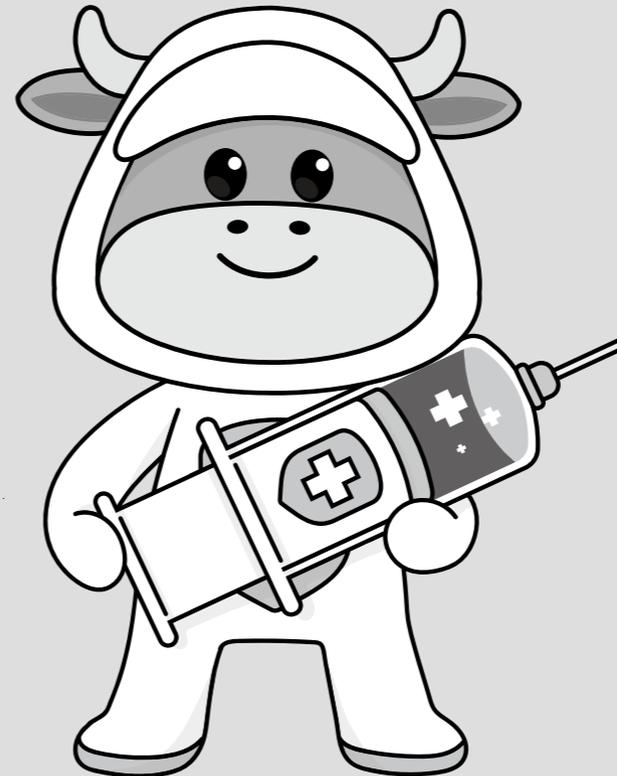
소속 시군지부에 문의

기타문의

전국한우협회 중앙회(02-525-1053)

이 사업은 한우자조금으로 운영됩니다.

4월, 10월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하세요!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접종대상

전국의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소

접종시기

소·염소는 1년에 2차례 일제 접종(1차 4월, 2차 10월)
→ 지자체의 자체 방역 여건에 따라 접종 시기
일부 조정 가능

구분	소규모 농가(50두 미만)	전업농가(50두 이상)
접종백신	2가 상시백신(O+A형)	
지원비율	보조 100%	보조 50%, 자부담 50%
공급방법	시·군에서 일괄 공급	축협동물병원에서 직접 구매
접종방법	수의사 등을 통한 접종 지원	자체 접종
위반시 처벌	예방접종 명령 위반 농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예방접종 명령 위반 후 발생농장: 보상금 전액 감액 * 신고 지연, 소독 미실시 등 방역 준수사항 불이행 시에도 보상금 감액	

접종 전·후 철저한 방역관리로 구제역을 방지합시다!

접종 전

백신 접종반은 농장 출입 시 방역복, 마스크, 방역덧신 및
장갑 등 착용 1농장/1회 사용원칙 준수

접종 시

백신 접종요령 준수, 접종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접종 후

접종인력·차량 및 접종에 사용한 물품 세척·소독 철저

사후관리

일제 접종 4주 내 백신 항체 양성을 모니터링 검사 실시
모니터링 검사 결과 항체 양성을 기준(소 80%) 미만 농가는
과태료 부과, 재접종 명령 및 1개월 내 재검사 조치

구제역 의심 가축 발생 시 신속 신고전화

농림축산검역본부

1588-9060

지방자치단체

1588-4060

매주 수요일은 축산환경개선의 날

깨끗한 축산환경

우리 스스로 만드는 '깨끗한 축산농장'
퇴액비 집중살포시기 (3~5월) 축사 청결 및 소독
미세먼지 저감! 축산환경 개선!



철저한 차단방역
축사 및 퇴비사 상시 관리
우리 스스로
환경개선!

일제소독/자체 방역
가축질병 예방



출입기록 작성 및
차단방역 자가진단



축사 가축분뇨 처리
퇴액비부숙 관리



개인 위생 소독 실천
축사내 청결 점검



전국한우협회

한우농가가 만들어가는 한우마당

글과 사진을 보내주세요

알고싶은 이야기 & 전하고 싶은 이야기



01



취재해주세요

필요한 정보
궁금한 이야기

02



슬기로운 영농생활

꽃, 나무, 한우 등
풍경 사진과 이야기

03



#일상 #소통

가족, 친구, 누구나
공유하고픈 이야기

메일: 025251053@daum.net 폰전송: 010-7110-1053



전국한우협회

전국한우협회 전농가 회원 동의서

우리 한우 산업은 지금까지도 많은 난관을 극복 해왔지만 더 안정되고 보람된 생활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군의 협회 활동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농가 혼자서 해결 할 수 없고 한우 농가 전체가 함께 할 때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농가 전체가 전국한우협회의 회원이 되고 그 회비는 자조금 2만원 중에서 3천원을 협회비로 거출하여 지회·지부의 활동비로 사용하여 우리가 바라는 안정된 한우 산업을 이끌어 갑시다.

절 취 선

전국한우협회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동의서

본인은 한우자조금 2만원 중 3천원(한우자조금 17천원)을 전국한우협회비로 납부할 것을 동의하며, 약속대로 한우산업에 요긴하게 쓸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휴대폰)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전국한우협회는 회원가입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은 개인정보항목을 수집하고 있으며, 상기 가입서 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였고, 개인 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므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전국한우협회 귀 중